

예산문화원



본관	신관	예산시네마	추사학당
구조 : B1~3층 면적 : 1137㎡ 용도 : 문화학교 및 전시	구조 : 1~3층 면적 : 795㎡ 용도 : 문화학교 및 전시	구조 : 단층 면적 : 499㎡ 용도 : 영화상영	구조 : 단층 면적 : 99㎡ 용도 : 추사인문학교



Cover story

표 제 석봉 고봉주
표지그림 2019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회원 작품모음



예산문화원보 / 비매물 (통권 제53호)

발행인 김시운 발행처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번지) 발행일 2020년 1월
전화 041)333-2441, 335-2441 팩스 041)334-4330 홈페이지 <http://www.cnkccf.or.kr/yesan.do>
기획 박세진 행정지원 이충환 이수영 이다연 김동환 조은실 디자인/인쇄 손디자인(주) 041) 331-2993

- 4 발간사
- 5 권두시
- 6 지역학칼럼
 - 예산학 특강
- 20 내포지역의 개신교 전래
 - 송현강 (한남대학교)
- 30 예산지역의 3.1 독립운동
 - 김진호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 충남학 특강
 - 47 문화유산으로 보는 예산 역사
 -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57 인류의 역사와 형벌의 변천사
 - 이경재 (충북대학교 로스쿨)
 - 62 충남의 역사문화 바로보기
 - 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선진문화 연수 답사기
 - 70 예술과 함께 걷기, 제주와 함께 걷기
 - 문화예술교육사 최예은
 - 74 해외문화기반시설 답사기
 - 예산문화원 장화수
 - 80 기다림과 배려로 만들어진 문화도시
 - 예산문화원 조은실
 - 82 일본 3대 마쓰리, 도쿄 간다 마쓰리
 - 예산문화원 이충환
 - 86 2019 충청남도 문화원 사무직원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다녀오며
 - 예산문화원 장혜민
- 2019 예산문화원 사업 이모저모
 - 90 신년하례회
 - 90 마을동제지원
 - 92 영선관리
 - 92 문화답사
 - 93 운영회의
 - 94 문화학교
 - 95 추사인문학교
 - 96 예산학 인문강좌
 - 97 충남학 인문강좌
 - 98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99 평생 학습 우수프로그램
 - 99 생활문화 활성화
 - 100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 102 지역문화인력 개인프로젝트
 - 102 예산학 연구 발전 세미나
 - 103 대백제 부흥군 위령제
 - 103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 104 제7회 자암김구 전국서예대전
 - 105 제30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 108 제3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 111 지역축제 나눔활성화
 - 111 문화예술지원 (고덕음악회)
 - 112 작은영화관 기획전
 - 112 2020 예당호 해맞이
 - 113 초청특강





예산군의 지명이 유래 된지 1100년이 되는 2019년의 해가 저물고 2020년 근면함과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흰쥐의 해 경자년(庚子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함 속에 예산문화원은 계획되었던 예산군 위탁 사업과 주민참여 문화 활동, 교육 사업, 향토민속 발굴 및 계승 사업에 최선을 다해 진행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같이 참여하시는 1,700여 문화회원분들과 1100년 예산의 향토색 짙은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행한 예산문화원보 53호에는 2019년 예산문화원의 크고 작은 30여개의 문화 사업들이 개략적으로나마 소개되어 예산문화원의 발자취를 되짚어 놓았으며, 지역학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예산의 정체성을 담은 학자들의 예산학 연구 논문들과 예산문화원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후 보고서를 함께 수록하여 내·외부 문화 행정 업무의 1년간의 활동을 담아낸 예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작은 그릇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예산군의 내적인 역사정신을 담은 기록문화의 소재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양망합니다.

2020년에는 예산문화원의 그동안의 성장을 바탕으로 내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는 한편 예산문화원 직원들의 지식기반 성장을 위한 자기 교육과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한 자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한편 이를 통해 문화가족 여러분께서 문화원의 직·간접 이용에 최대한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실경영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지역에 편재 되어 있는 230개 문화원의 모범 운영사례로 리딩하는 예산문화원과 예산군의 능동적인 문화사업 협업을 통한 기획으로 문화 복지를 희망하는 문화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 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올리며 대망의 2020년 예산군민과 출향인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합니다.

2019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공 학 박사 김 시 운

경자년엔 사랑의 꽃씨를

장진업

햇살이 포근한 우리의 마음 밭에
날마다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
사시사철 꽃씨를 뿌리렵니다
경자년엔 사랑의 꽃씨를 뿌리렵니다

피어나는 꽃을 볼 때마다 취하는 향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마음인줄 알아
소슬 바람에 전해진 이 사랑이 멀리 멀리 퍼져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해도
항상 깊은 마음으로 모두를 맞이하렵니다

겨울날에도 따뜻한 태양 빛으로 그대들을 감싸고
하얀 눈 소복이 내리는 날 사랑은 분홍빛으로
그대 가슴에 행복한 마음으로 덮어주렵니다
언제나 맑고 밝은 얼굴 마주하며
그대 향기속에 취하려합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피어올라
결코 잊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영원한 사랑
경자년엔 이런 사랑의 꽃씨를 간절한 기도로 뿌리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떠오르는 저 태양으로
우리의 마음 밭에 오색 꽃향기가 가득하도록
사랑의 꽃씨를 충절에 고장 예산에 뿌리렵니다



예산학 특강

내포지역의 개신교 전래

송 현 강 (한남대학교)

목 차

- | | | |
|----------------|--------------|--------------|
| 1. 내포 개신교 전래 | 2. 내포 개신교 확산 | 3. 내포의 개신교인 |
| (1) 덕산-해미공동체 | (1) 감리교의 확산 | (1) 갈산교회 이인주 |
| (2) 감리교의 내포 선교 | (2) 성결교의 확산 | (2) 민족대표 최성모 |

1. 내포 개신교 전래

(1) 덕산-해미공동체

내포에서 가장 먼저 관찰되는 개신교 공동체는 1897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나오는 덕산의 신자 집단이다. 이 덕산 신앙공동체의 리더였던 전 면천군수 류제는 원래 내포의 미곡을 대량으로 취급하던 서울의 무곡상이었다. 여기서 무곡이란 ‘무곡자생’ (實穀資生) 등의 표현에서 보듯 전국의 곡가 차이를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던 경강상인들의 상행위를 의미했다. 당시 충청도의 곡물은 그들의 중요한 거래 품목이었는데, 그는 1892-1893년경 내포에 와서 수십만 냥 어치의 쌀을 무곡하였다. 그랬던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온 것은 내포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 1-2년 후인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 때문이었던 것 같다. 면천은 호서의 농민군이 많이 활동한 지역이었고, 면천의 박희인은 북접 산하의 충청남도 출신 두령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런데 류제는 바로 그 동학의 반대편에 서서 정부의 선유별관으로 활동했다. 그가 면천군수가 된 것은 동학운동에 대한 그의 선유활동의 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류제는 면천군수에서 물러난 후 덕산 한내로 이주하여 “예수도”를 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종교적 활동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사람들에게 ‘교회 책’을 나눠주고 ‘교회이치’를 묻는 이들

에게 답변하였다. 그는 또 서울의 교회를 잘 알고 있었다. 류제는 자신이 보던 책을 그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양의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였다. 기독교 서적의 구입 루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교회는 “삼백리 되는” 충청도 덕산에 류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알고 1897년 10월 최병헌과 박덕환을 그곳에 보내 전도하게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서울로 올라온 후에 신형구 등 몇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다시 그들이 전도하기를 힘써 입교인 수십 명과 학습인 수십 명을 얻게 되었다. 1년 4개월 간 면천군수 자리에 있던 류제는 1896년 10월 이후 면천과 이웃하고 있던 충청도 덕산의 한내에서 예수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그 지역에 기독교 성향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 서울의 감리교선교부가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1898년경에는 몇 사람의 세례교인을 포함하여 수십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류제가 거주하고 있던 덕산 대천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수춘에는 사헌부 감찰(1892년 경)을 지낸 후 낙향하였던 조원식 역시 1897년 봄부터 “예수성교를 봉행하여 경천애인하기를 힘쓰고” 있었다. 류제와 조원식 사이에는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원식은 류제의 공동체와는 별도로 자신의 향리 수춘에 교당을 설립하고 있었는데, 수춘의 교당은 류제의 대천 교당에 비해 하위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감리교의 한국인 사역자 최병헌은 이곳에 체류하면서 덕산의 교회에 대한 지방관들의 심한 박해를 목격하게 되었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에 실린 덕산교회에 대한 기사는 주로 그의 투고에 의한 것이었는데, 조원식이 구타당하며 잡혀간 일과 류제의 동네에 병정을 보낸다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대천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결국은 류제가 서울로 올라감에 따라 덕산교회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01년 감리교의 충청도 담당 선교사 스웨어러(W. C. Swearer, 서원보)는 한국인 사역자들의 정보를 모아 지역 선교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당시 해미의 11개 마을에 53명의 교인(입교인 4명 포함)이 산재해 있음과 또 덕산에도 작은 공동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1897년 류제에 의해 형성된 이 지역 기독교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해미 쪽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해미가 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덕산과 해미는 군의 경계를 두고 바로 이웃해 있었다. 1902년의 보고에 의하면 해미와 덕산의 공동체는 지속되고 있었지만 선교사들의 무관심 가운데 인원이 오히려 감소(총 47명)하고 있었다.

1903년 감리교는 위의 공동체들을 토대로 홍주구역(Hong-ju circuit)을 신설하였다. 담당 선교사 케이블(E. M. Cable, 기이부)은, 당시 그곳에서 한 사람이 제물포까지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줄 선생을 보내주기를 간청했다고 하면서, 현재 그곳에는 수백 명의 구도자들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감리교는 1904년 홍승문을 처음으로 거기에 파송하였다. 1905

년 덕산-해미 지역에는 150가족 700명으로 추산되는 가입희망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사역은 1908년 초 시작되었다. 담당 사역자로 조사 노병목이 투입된 것이다. 그의 활동은 눈부신 것이었다. 1908년 6월 선교사 테일러(C. Taylor, 대리오)는 노병목이 새롭게 진출한 지역을 방문하여 9명의 세례지원자와 3개의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던 완공 직전의 예배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09년 4월말 그가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29명의 세례 지원자와 108명의 새로운 신자, 3개의 예배당과 건축 중인 1개의 예배당이 거기에 있었다. 테일러는 매달 7엔씩을 받으면서 한해 6,000~7,000리의 거리를 누비며 내포지역의 공동체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던, 이 새로운 일꾼 노병목의 활동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2) 감리교의 내포 선교

충청남도는 미국남장로교가 선점한 서천과 남포, 부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미국북감리교의 선교 구역이었다. 1903년 봄 공주에 머물면서 실제로 그곳의 현장을 경험한 북감리교 선교사 스웨어러는 그 해의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공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주 선교사 파송을 주장하였다. 그의 말처럼 공주는 당시 충청남도의 도읍과 행정·교통의 중심지였다. 감리교선교부가 공주에 스테이션(station: 선교거점)을 개설한 것은 그들이 향후 충남에서 선교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그들은 서울과 평양 그리고 제물포에 강력한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있었다. 스웨어러의 주장은 상당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벌써 의료선교사 맥길(W. B. McGill, 맥우원)은 이용주와 함께 1903년 7월 공주에 도착하여 그 해의 여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공주스테이션은 내포지역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공주스테이션에 주재하며 충남 선교에 나선 선교사들로는 감리사 스웨어러를 필두로 1906년과 1907년 각각 인연을 맺게 된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 우리암)와 테일러 그리고 1908년의 앨리스 샤프(Mrs. Alice Sharp, 사에리시)와 1919년의 아멘트(Charles C. Amendt, 안명도)가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물면서 충남의 감리교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내포지역 감리교 목회자 임명 상황 (1912-1922)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예산					이용주	김광식					
신창	박영석										
홍주	이상만	이상만	이상만	이상만	이상만	김병제	김병제	김병제	김병제	김병제	한창섭
보령											이창권
서산	송환수	홍원직	홍원직	홍원직		홍원직	조종범	조종범	조종범	이명제	이명제
태안	양치옥	양치옥	양치옥	양치옥	양치옥		서상윤		김병제	이명제	이명제
당진	이근석	이용주	이용주	이용주	이용주	이상만	이상만	조종범	조종범	이창권	이창권

1912년 3월 새로 짜여진 충남 감리교의 목회 진용을 보면 이제 공주스테이션의 활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감리교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충남의 대부분의 지역을 순회구역(circuit)으로 편성하여 교역자들을 일일이 배치하고 있다. 아산-신창(박영석)·홍주(이상만)·서산(송환수)·태안(양치옥)·당진(이근석) 등 당시의 하위 지방행정 중심지에 고루 진출하고 있다. 또 각 '지방'에는 한국인 목사(박봉래와 손승용)를 파견하여 순회하도록 하였다. 충남의 감리교는 이제 항구성을 갖는 종교기구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령의 궁촌교회는 1912년 권사 김낙권의 주도로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1913년 스웨어러 등을 강사로 100여명의 교유가 참여한 사경회를 열었다. 또 안면도의 승언리교회를 계승하여 세워진 창기교회의 성장 모습도 보인다. 승언리교회가 폐지되자 양상준·염상근·조성운 등이 다시 창기 마을에 예배당을 정하게 되었는데, 교인이 7-80명에 이르렀다. 1905년 홍성 갈산의 토착 세력인 전주이씨 이인주에 의해 세워진 갈산교회는, 부설 광성학교를 세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내포지역 감리교회 설립 상황 (1915년)

태안	창기 (승언리)
당진	울사, 면천, 삼화
서산	서산, 해미
홍성	홍주, 갈산, 광성리
예산	예산
신창	신창로산 (노루목)
보령	궁촌, 시무터

1917년 김광식 목사가 맡은 내포의 6개 구역은 홍순호 전도사의 해미와 서산 그리고 이용주 전도사의 예산·당진구역의 성장이 보고되고 있다. 광천에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갈산교회는 1917년 사경회 이후 출석인원이 2배로 늘었다. 또 특이한 것은 당시 내포지역의 교회들 사이에 일반 연보와는 별도로 유사부에 직접 오곡과 채소, 고추, 파, 현금, 수공품 등으로 십일조를 헌금하는 교회 내의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구역의 갈산교회와 1913년경 세워진 효교교회, 그리고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서산구역의 해미교회, 당진구역의 율사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2. 내포 개신교 확산

(1) 감리교의 확산

1919년의 3.1운동은 내포의 감리교회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그 해부터 1921년까지 내포 지방 교인 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선교사 윌리엄스는 1920년 회의에서 “1919년의 소란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신앙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겁을 먹고 약해졌다. 신자들은 사망으로 감시당하면서 방해를 받고 있다” 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건을 통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며 낙관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선교사들은 선교 전략을 한국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부흥회에 역점을 두는 체제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22년 내포의 교회들은 20% 이상 성장하게 되었다. 예산·당진·서산·홍주의 교회들이 예배당과 사택을 새로 짓거나 구입한 것도 이 해의 일이었다. 또 당진구역의 운산리(합덕)와 홍성구역의 덕산, 당진구역의 면천에서도 예배당을 장만하였다.

내포지역 감리교 목회자 임명 상황 (1923-1930)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예산				한태유	김병제	조종범	최성모	심명섭
보령	이창권	이종권	이종권	이장한	이장한	안성호	안성호	안성호
홍성	한창섭	한창섭	한창섭	임진국	임진국	방기순	김병제	김병제
광천								한선호
서산·태안	하순호	이장한	이장한	이종권	이종권	이종권	이종권	이종권
당진	이장한	이근범		조근영	이종권	이종권	이종권	이종권
삽교						조종범	조종범	

내포지역 감리교 목회자 임명 상황 (1931-1941)

	1931	1932	1933	1934	1935	1937	1939	1941
예산	심명섭	심명섭	안성호	이명제	조종범	안성호	김희운	이명구
삽교	김재홍	김재홍	김병제/김재홍	이명제	최종순		안성호	안성호
홍성	김병제	김병제	송득후	송득후	이명제	전재풍	송희용	김용무
광천	한선호	한선호	한선호					
덕산					김덕경			
당진	이종권	이종권	이종권	홍순호	송희용	송희용	정형기	송사원
서산		이광순	이광순	박유병	김태형	김태형	이명구	김진태
갈산						조종범	원용한	원용한
해미								송은광
안면도	김기원	김기원	강학수	강학수			성낙준	임봉익
보령	안성호	안성호	이태규		김태현	김태현	김진태	김기동

예산읍교회는 1925년 대대적인 전도 캠페인을 전개하여 모두 85명의 새로운 신자를 얻었다. 또 1929년에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하나인 최성모 목사가 부임하여 목회하였다. 1923년 신설된 감리교의 홍성 ‘지방’은 청양, 보령, 홍성, 서산태안, 당진의 5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28년의 경우 홍성지방은 25개의 교회와 9개의 기도처, 그리고 1,292명의 교인 수를 기록했다. 홍성지방은 1930년의 특별대전도집회에서 1천여 명의 새신자가 등록하면서 어떤 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1931년부터 “신자 수효라든지 재정 증가라든지 신령 상 은택이 풍부하여 날로 진흥상태에 있게” 되었다. 구역 편성도 기존의 5개 구역에서 광천, 삽교, 안면도, 예산 구역이 늘어나 모두 9개가 되었다. 교회의 수도 1933년 28개(기도처 3), 1934년에는 33개(8)에 2,458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목회자의 수 역시 1931년부터 5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선교사 한나 샤프(Hanna Scharpff, 쉐읍)는 1926년 홍성지방과 인연을 맺은 이래 1939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지방의 여성선교와 순회전도 그리고 유치원의 운영에 힘을 쏟은 당대 홍성을 대표하는 선교사였다.

1925년의 연회록에서 이미 간파하고 있듯이 홍성은 내포의 대표적인 구역으로서, 이미 1922년부터 1940년까지 지방회와 사경회 등 굵직한 모임들이 거의 매년 홍성읍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이 교회는 제직들의 열심과 새벽기도 그리고 청년들의 열성적인 전도 등 짜임새있는 기성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 인근의 팔괘리와 신곡리의 기도소는 홍성읍교회의 청년들에 의해 개척된 곳으로 1931년 당시 그 두 곳은 벌써 50-60명, 70-80명이 모이고 있었다. 홍성읍교회는

1937년 석조로 된 50평 2층 양옥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1939년 평양의 임종순 목사를 초청하여 이 예배당에서 열린 지방대사경회에는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갈산교회는 1926년 새벽기도회의 불이 일어났는데 그 흐름은 역전도시 삼교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갈산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상당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었다. 1939년 김태희 목사를 초청하여 열린 부흥회에서는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예배당 건축 연보 5,000여 원이 모금되어 5년 뒤에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에도 1930년과 1932년 각각 예배당을 건축한 광천교회와 부평리교회 그리고 1933-34년에 예배당을 신축한 상봉리, 봉림리, 팔괘리, 또 신곡리기도소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보령군의 대천(궁촌)교회는 1923년 1,500엔을 예산으로 16칸짜리 한옥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었는데, 1925년 마침내 새로운 예배당이 완공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선교사들은 보령구역의 수부인 대천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곳이 흥성지방의 또다른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3년 현재 보령구역은 대천교회 뿐으로 입교인 수는 37명이지만 매주 30여 명의 신자가 출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1922년 한태유 목사의 주도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모금을 시작한 예산교회는 1928년에 가서야 약간의 부채를 남긴 채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다. 천안지방 감리사 김병계 목사는 1927년부터 예산에 상주하면서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예산의 방직공장 여공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등 예산교회의 운영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1929년 연회록에서 예산의 몇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9월 예산교회에서 열린 동화대회에는 1,0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예산구역에는 응봉면 호화리교회, 신례원교회, 1928년 예배당을 완공한 예산군 오가면의 양막교회, 예산역전의 강습소가 모체가 되어 설립된 산성리(임하리)교회, 1931년경 세워진 송석리교회와 1932년 예배당을 신축한 송암리교회가 있었다.

삼교교회는 1926년 갈산교회의 신자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1932년에는 엘리스 선교사의 회갑을 맞아 그 기념예배당을 삼교에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1933년 삼교역전에 17칸 합석지방의 예배당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1930년의 삼교교회는 사회주의 청년들이 방해를 놓아 유일한 사역자 김인기 전도부인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1912년경 세워진 좌방교회는, 1927년경 일찍이 교역자의 경험도 있고 삼교면장이면서 재력가인 임명호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벌써 1929년에 흥성지방회, 1931년에는 흥성지방 주일학교지도자강습회를 열고 있었다. 덕산교회도 1923년 새 건물을 마련하였다가, 1937년에 이 예배당을 다시 고쳐서 지었다. 이 교회는 1930년 박홍서 전도사 시무 당시에는 교회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32년 새로운 신자들이 일어나서” 설립된 고덕의 대천교회는, 바로 그 해 예배당 건축에 들어가 1933년 완공하였다. 이 교회는 1939년 조신일 목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열었다. 효교교회는 1926년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교회의 신자 2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를 받아 남들보다 쉽게 대출받은 것이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었다. 주민들은 효교교회의 예배당 신축과 교인들의 성공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1939년 효교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당진읍교회가 세워진 것은 송산면 상거리교회와 같은 해인 1927년경이었다. 1926년 흥성지방 전도대는 서산, 당진 두 구역을 순회 전도하면서 당진읍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당진읍교회는 1928년 건축헌금을 시작하여 그 결과 1934년에는 당진읍교회의 교회 기지가 감리교 재단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1922년 예배당을 봉헌한 합덕교회, 1923년 예배당 사택을 건축한 면천교회, 1939년 총공사비 1,300여 원을 들여 예배당을 지은 삼화리교회, 1928년 예배당을 봉헌한 고산리교회, 그리고 1932년 설립되어 1933년 12칸의 예배당을 봉헌한 기지시교회가 당진군의 교회들이었다.

충남 서산군 서산면 동문리의 서산읍교회는 1933년 27칸의 합석제 대형 예배당과 주택 10여 칸을 신축하고, 이어서 1937년에는 유치원을 신설하여 60명의 원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1917년 세워진 해미교회는 1937년 1,500원의 예산을 들여 회당 개축을 시작, 1939년 완공하였으나 아직 채무가 많아서 봉헌식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에 1932년 설립되어 이듬해 예배당을 만든 유계리교회와 명재운의 열성으로 야학을 꾸준히 운영하던 오남리교회가 있고, 1927년경 세워진 솔안교회는 1928년 예배당을 봉헌하였다. 태안의 승언리교회도 1932년 사택을 신축하였다.

(2) 성결교의 확산

충남에는 이미 1912년부터 부여의 규암과 강경(1918년)에 강력한 성결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내포의 첫 성결교회는 흥성의 금당리교회이다. 이 교회는 그곳 출신으로 강경에 가서 장사하면서 강경교회에 출석하던 신신근이 다시 금당리로 이사와서 전도한 결과로 7-8명의 개종자들을 기반으로 1923년 2월 시작되었다. 그 후 1년 간 목회자가 없음에도 그들은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하면서 가끔씩 강경교회 이인범 목사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산을 넘고 50마일을 걸어서 그곳을 드나들었다. 또 그 해 9월 4일부터 9일까지 원세성 목사를 청하여 거행한 부흥회에서는 “일반 신자들이 성신의 불 가운데서 말 못할 죄악을 통회자복함으로 큰 은혜를 받는 중 다른 교파의 교역자와 교우 수삼인도 같이 참여하여 동일한 은혜를 받아 중생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금당리교회는 1924년 5월 18일 예배당을 헌당하고 아울러 계재우와 이명순이 그 교회의 첫 목회자로 임명받았다.

삼교(역리)교회는 1926년 흥성 금당리교회의 지교회로 출발했다. 즉 삼교로 이주한 금당리교회 교인 한춘경의 전도로 약간의 가입 희망자가 생기자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개방하고 예배를 보

게 되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금당리교회의 남녀교역자들은 삼교에 와서 대대적인 전도활동을 벌이게 되었고 거기서 30여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약 3년간 예배당 없이 지내던 삼교교회는 1928년 7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가을에는 한인업이 신임 전도사로 부임했다. 특히 그 해 10월 4일부터 있었던 특별집회에서는 “감리교회 형제자매들이 다수히 출석하여 대만원” 이 되었다.

내포 성결교회 목회자 일람표 (1927-1941)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금당리	김달호 유진심	김달호	김달호 안재신	김달호 안재신	김달호 안재신	배문준 안재신	김석기	배문준 김석기	김창환 김석기	김영균 김석기	김종률	김종률 김규섭	손창현		손창현	
홍성읍		맹필균														
황계										김석기		박완중				
수란리															이창권	
신곡리										김영균		김종률	손창현 윤순단	손창현 윤순단	손창현 윤순단	
예산읍							이창재	이창재	이창재 이희순	김병채 이희순	이두순	박완중	박완중	김종율	손은주 김인운	장은규
신례원													박완중	박완중	박완중	
삼교 (역리)		한인업	한인업	한인업 윤순단	한인업 윤순단	한인업 윤순단	한인업	최종영 연숙정	이창재 연숙정	김정호 연숙정	김정호	남덕규	남덕규	정창길		
구만리														호남순		

내포 성결교회 교인 통계표 (1928-1938)

	1928	1929	1930	1931	1932	1936	1937	1938
금당리	71	76	100	100	90			93
황계				20				43
신곡리					60			33
홍성읍		16						
예산								84
서산								49
삼교		38	50	69	85			223
구만리						65	65	88

내포 성결교회 조직표 (1933-1942)

호남 지방	1933	1934	1935	1936	충호 지방	1937	1938	충호 지방	1939	충남 지방	1942	
순회		장원초	김응조	김정호		남덕규					전계홍	
예흥 구역	금당리	금당리	금당리	금당리	예흥 구역	금당리	금당리	충남 구역	금당리	충청 제4구역 (예산 구역)	금당리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서산	서산				서산	서산
	신곡리	신곡리	신곡리	신곡리		신곡리			신곡리		신곡리	신곡리
	수란리											대흥
												황계리
	운산리											역리
	황계	황계리	황계리	황계리			황계리		황계리			구만리
	석택리											신례원
	역리	역리	역리	역리			역리		역리			
구만리	구만리	구만리	구만리		구만리	구만리		구만리				
								신례원				

성결교는 1933년 총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내포의 성결교회들은 충호지방회-예흥(예산·홍성) 구역에 편제되었다. 1930년대에는 삼교교회와 예산교회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금당리교회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교회들로는 홍성읍(1928년 8월), 황계(1930년 5월), 수란리(1931년), 신곡리교회(1934년 2월)가 있다. 1930년 2월 1일 저녁에 있었던 금당리교회의 부흥회는 “저녁부터 오순절이었다. 집회장소는 불가마로 화하였다. 이 불이 각 개인의 심령에 임하여 밤이 맞도록 태운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뜨거운 것이었다. 금당리교회는 1930년대 평균 100여 명의 교세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다. 삼교교회는 1931년 구만리기도실에서 맹필균·유탉운 목사를 청하여 대거전도회를 연 결과 40여 명의 가입희망자를 얻을 수 있었다. 또 1933년에는 이봉헌을 장로로 피택하였다. 구만리교회는 1935년 예배당을 건축한데 이어 1936년부터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예산교회는 1932년 6월 2일 그곳에 도착한 이창재에 의해 7월 31일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때 벌써 유년 30여 명과 장년 16명이 참석하고 있었고, 1934년에는 예배당을 신축하고 최종영 전도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갖고 있다. 박완중은 1939년부터 신례원교회의 교역자로 활동했다. 그리고 1933년 3월 충북 ‘지방’ 에서 황종을 전도사를 파견하여 개척한 서산교회가 있다.

3. 내포의 개신교인

(1) 갈산교회 이인주

내포를 비롯 충남 개신교 선교 초기에 먼저 관찰되는 교회 수립의 양상은, 향촌사회 내부에 개신교 수용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존재와 영향력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1906년 11월부터 광범위하게 충청지역을 순회한 감리교 선교사 스웨어러는 “여러 군데에 이미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들” (men who had already taken the leadership in their different sections)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내포의 경우 1905년 세워진 홍성 갈산교회의 설립 주역 이인주가 바로 그런 유형에 적합하다.

갈산의 전주이씨 토착세력이었던 이인주는 1904년경 북장로교 선교사 밀러(Frederick S. Miller, 민로아)의 전도로 개종한 이후, 이어서 자신이 인도한 이회연, 전용규 등과 함께 갈산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창설자일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모습을 바꿔놓은 농촌의 개척자요,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했다. 그는 교회의 지방사역자(local preacher)로 일하면서, 농사에 열중하여 1920년경에는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된다. 1925년 홍성지방 감리사 김유순은 그가 예배당과 학교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또 그는 더욱 사업을 번창시켜서 그 돈을 지역교회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가 갈산교회와 더불어 나란히 세운 광성학교는 당시 그 지역의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1930년 갈산을 방문한 <기독신보>의 기자는 “40호쯤 되는 가난했던 마을이 이인주의 독려로 말미암아 거의 자작농으로 일어섰으며, 동네사람 대부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근처에서 술 담배를 찾아볼 수 없는, 논과 밭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다. 그는 이 “촌교회에 150명씩 모이는 것이 기적” 이라고 환호하면서 학생 70명이 모이는 광성학교와 소비조합, 양돈과 양계의 예를 들어 이곳을 “모범 농촌 이상촌” 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갈산교회의 수립과 그 독특한 기독교적 향촌사회의 형성은 이인주의 기독교적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예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관찰된다. 즉 논산 가야곡 육곡교회와 부여서씨(서기훈), 유성 원동교회와 이도명, 한산 연봉교회의 김규배, 금산 지방동교회의 류기택, 임천 초왕교회 고내수, 목천 용두리교회의 유중무, 부여 규암의 김성기 등이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들 충남의 초기 기독교 주도층 인사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곧 ① 그들 중 다수는 신분상 중간층으로 자신들의 향리에 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으며, 또 시대의 흐름과 서울의 정치적

동향에 민감하거나 그런 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근대화의 추세에 적극적이다. ②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 개인의 의지가 향촌사회의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의 정도는 그들이 세우는 교회의 규모에 거의 비례한다. ③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수용에 적극적이어서 스스로 향촌민들에게 교회 가입을 권유하여 어떤 개종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교회와 학교의 설립을 병행하고 있다. ④ 그런데 이들의 기독교 지향적 태도는 순수한 종교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대안으로 여겼던 근대성의 물질적·정치적 측면과 기독교를 동일시한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이 지역 기독교의 흐름이 그 후에 점차 (오직 종교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非정치회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강력한 색채를 드러내면 낼수록 이들이 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동반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예산교회 최성모

예산제일감리교회 제5대 담임목사인 최성모는 3.1운동 민족대표로 유명하다. 그는 1874년 서울 안국동에서 출생하여 14세 때인 1888년(고종 11)에 시행된 무자식년시 사마시 진사과에 급제했다. 그러니까 소과에 합격하여 과거의 본격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것이다. 전체 324명 가운데 216등의 성적이었다. 최성모가 나중에 진사목사라고 불리게 된 연유이다. 어린 시절 그가 수행했을 집중적인 성리학 학습은 깊숙이 내면화되어 향후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기저로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그의 개종은 1907년 무렵 이루어졌다. 1907년 무렵 상동교회 전도사 이필주의 권유로 그곳에 가서 담임목사 전덕기의 설교를 처음 접한 최성모는 그 열변의 내용에 매료되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집으로 돌아와 상투를 자르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애가 그의 앞에 열리고 있었다. 당시 항일구국운동의 본산이었던 전덕기 목사의 상동교회에 가담, 이른바 ‘상동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민족운동가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전덕기의 권유로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서대문밖 감리교협성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 사이 최성모의 중요한 활동 공간은 바로 YMCA였다. 그는 월남 이상재와 함께 YMCA에서 활동했다. 신학교 졸업 후 최성모의 첫 목회지는 1902년 5월 세워진 서강교회였다. 당시 그의 설교는 신앙을 통해 구국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내용이었지만, 그 특유의 해학이 섞인 이야기로 젊은이들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하며 감명을 받았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그의 원숙한 성리학적 교양과 신학으로 다져진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에 더해 그가 구사했던 당

대 지배층으로서의 위트 넘치는 고급의 한국어는, 그를 요즘으로 치면 ‘스타 강사’로서의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다. 그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에 고무되어 4-5명의 학생이 일본 유학을 떠났다고 한다. 이어서 최성모는 1916년 서강교회를 떠나 해주 남본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였다.

최성모가 해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때는 1919년 2월 25일이었다. 그 날 밤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YMCA 간사 박희도에게 3.1운동 민족대표 동참 제의를 받은 그는 그 자리에서 이를 수락하였다. 1907년 전덕기 목사의 강연에 감동 받은 이후 이제 10년 이상 기독교구국운동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삼일운동 참여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크고도 소중한 일이었다. 3월 1일 오후 두 시 최성모는 약속 장소인 명월관에 도착했다. 만해 한용운의 선장으로 만세를 부른 후 경찰이 들이닥쳐 최성모 등 민족대표들을 체포, 수감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2년 8개월 동안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다.

최성모는 재판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주장했다. 천부인권의 가장 핵심가치인 자유권을 전제로 하여 조선 사람들에게 저작과 여행은 물론 언론과 교육의 자유가 없음을 일갈했다. 성리학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개화기 지식인을 거쳐 근대 민족운동가로 신속하게 이동하며 시대정신의 부름에 응했던 그의 삶의 궤적이 짧은 진술의 행간에서 읽혀진다. “조선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

최성모는 출옥 직후 서강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그가 1914년부터 2년 동안 초임 목회하였던 바로 그 교회였다. 당시 최성모가 뿌렸던 씨앗은 그 후 삼일운동에서 여지없이 결실로 돌아왔다. 서강교회는 고양군 삼일만세시위의 주요한 동력이었고, 그 주모자들은 학창 시절부터 최성모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었던 것이다. 삼일운동 이후 서강교회는 한때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 또는 피신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서강교회 담임목사 부임 약 1년 후인 1922년 9월 다시 상동교회로 파송 받았다. 상동의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인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필주 전도사의 권유와 전덕기 목사의 감화로 상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그가, 결국 목회자가 되고 삼일운동에 가담하여 옥고를 치른 후 모교회로 돌아와서 목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전덕기 목사의 유지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계승한 인물이기에 교회 앞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상동교회 목회 시절 그는 ‘진사 목사’로 불리며 교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최성모의 생애에 있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최성모는 1924년 상동교회를 떠나 만주 봉천으로 임지를 옮겨 선교하였다. 그가 안정적인 목회 환경을 뒤에 두고 갑자기 서울을 떠난 것은 아마 삼일운동 지도자로서 일제의 집요한 압박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한다. 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민족적인 동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열악한 상황에서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자 1925년 11월 귀국하여 1926년부터 3년간 천안교회를 시무한 후 1929년 1년 동안은 예산교회를 돌보았다. 예산과의 짧은 인연이었다. 1932년 중국 대련에서 선교사업을 재개했던 그는, 신병으로 다시 귀국하여 1937년 사망하였다. 그의 유해는 지금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3월 21일 예산 읍내 예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예산헌병분대 헌병들에게 사전에 독립만세운동이 탐지되어 제압을 당함으로써 독립만세를 외치지 못했다.⁶⁾

3월 31일 예산 읍내 예산리에서 오후 2시경 야소교 신자 부인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약 5 ~ 60명의 시장 군중들이 호응해 독립만세를 불렀다.⁷⁾ 이어 군중들은 예산헌병분대, 예산군청을 향해 이동하며 계속해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예산헌병분대 헌병들이 긴급히 출동해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는 탄압을 자행함으로 만세 군중들은 해산했다.⁸⁾

4월 3일 고덕면 대천리 대천(한천) 시장에서 약 2~3,0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⁹⁾ 이에 대천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시장으로 출동해 만세 군중들을 제지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군중들은 불응하며 계속해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헌병들은 총을 발포하려고 시도하여 군중들과 충돌하게 되어 인한수(印漢洙)가 순국했다. 장문환(張文煥)은 이정래(李正來)의 장남 등 5~6명과 인한수의 시신을 운구하며 약 15명과 함께 헌병주재소로 갔다. 그는 주재소 소장인 헌병오장 지촌송태랑(志村松太郎)에게 ‘어째서 인민을 살해하는가? 이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들도 모두 살해하라!’ 며 욕박했다. 소장은 장문환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했으나 그가 불응하자 강압적으로 밀쳐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시신도 밖으로 끌어냈다. 헌병들의 행동에 격분한 장문환은 소장에게 달려들어 ‘우리들을 죽여라!’ 라 소리치고 가슴을 구타했다. 이어 흥성에서 80연대 보병 하사 이하 7명이 출동해 헌병들과 함께 진압에서 나서 주도 인사 7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군중들도 구금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 주재소로의 진입을 시도했다.¹⁰⁾

6) 소요사건일람표.

7) 참가 인원수에 대하여 60여 명(독립운동사, 145쪽), 60명(기7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50명(기1의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소요사건경과개람표), 50명 내외(기7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이 있다.

8) 기7, 高第九七二二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四號), 1919.04.01.;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七册其一, 密第一〇二號其一七二/第五七號, 電報: 全國各地ノ示威狀況, 發신: 兪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1.(문건을 이하에서 '기1'로 표기함); 기1, 密第一〇二號其一四五/朝鮮第七五號/第八四號, 電報: 三月三十一日 示威運動 狀況, 發신: 兪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1.; 일본외무성기록, 秘受〇三八五三號, 電報譯: 昨三十一日二於テハ京畿道龍仁郡..., 1919.04.02.; 일본외무성기록, (43), 電報譯: 三十一日京畿道龍仁郡..., 1919.04.02.; 기7, 朝鮮特報第九號, 騷擾事件二關スル狀況(1919.03.26~1919.04.05.), 1919.04.07.; 소요사건경과개람표; 《毎日申報》1919년4월6일 3면6단, 「충청남도-禮山」-사오인 테포됨.

9) 참가 인원수에 대해 3,000명(한국독립사), 2~3,000명(《毎日申報》 1919년4월11일자 3면7단, 「禮山-직사자 일명」), 약 1,000명(기7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기1의 전보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일본외무성기록의 전보역 一日京畿長湍郡廳...; 기7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 일본외무성기록의 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二關スル件(次官ヨリ侍從武官長二通牒)-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二關スル狀況(1919.04.01.~1919.04.06.간의 보고에 의함), 發신: 山梨半造(陸軍次官), 수신: 侍從武官長, 1919.04.10.; 소요사건경과개람표; 독립운동사, 600~1,000명(기1의 전보 4월 3일의 시위상황1), 500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이 있다.
한국독립사는 金承學, 『韓國獨立史』, 독립문화사, 1966이다(이하에서는 '한국독립사'로 표기함).

10) 한내장4·3만세운동기념사업회의 자료에 의하면, '4월 3일 오후 재물봉 아래 면사무소 앞 마당에 각 마을에서 온 이장, 통장과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니, 일제 헌병 지무라 마쓰다로가 말타고 달려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만세 불렀다. 일본 헌병의 칼에 앞장 서서 만세 부르던 상공리 인한수 통장이 죽임을 당하자, 장문환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인솔 헌병주재소를 점검하여 인한수의 시신을 주재소에 모셔 놓고 헌병을 붙잡아 살려 내라고 족쳤다. 온 시장 사람들이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조인원 선생의 지휘 아래 조선독립만세를 가열차게 불러 온 들만이 떠나 갈 듯 하였다. 독립만세 시위를 마치고 안 의사의 장례를 모신 후 장문화 의사는 헌병대에 검거되어 공주 감옥에서 1년 반 옥살이를 하였다. 상장리 이규남 선생도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하여 옥에 갇혔다 하나 부상자와 검거된 명단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헌병과 보병들이 실탄을 발포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만세 군중들은 해산하게 되었다.¹¹⁾

4월 4일 광시 하장대리에서 250명의 주민들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¹²⁾ 이어 오후 8시부터 광시 면내 각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면민들은 다음날 4월 5일 오전 3시경 광시리에서 약 4,000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면사무소를 공격했다.¹³⁾ 그리고 하장대리에서는 약 40명의 주민들이 2회에 걸쳐 독립만세를 외쳤다.¹⁴⁾

(4월 4일) 대술면 산정리에서 민제식(閔濟植)은 주민 약 30명과 함께 마을의 높은 곳에 올라가 구한국기를 세워놓고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¹⁵⁾

(4월 4일) 덕산면 읍내리에서 약 30명의 주민들이 덕산시장에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¹⁶⁾

11) 기7, 高第九八三三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七號), 發신: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수신: 長谷川好道(朝鮮總督), 1919.04.04.; 기1, 朝鮮第六三號/第四六號, 電報四月三日ニ於ケル狀況 其ノ一, 發신: 兪島宮太郎(朝鮮駐劄軍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4.; 기1, 朝鮮第八四〇號/第四三號, 電報四月三日狀況其二, 發신: 兪島宮太郎(朝鮮駐劄軍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4.; 일본외무성기록, 秘受〇三九八〇號, 電報案 前報ノ外二日京畿道振威郡..., 發신: 朝鮮總督, 수신: 拓殖局 古賀長官, 1919.04.05.; 기1, 密第一〇二號其一五四/第一〇一號, 電報 全國各地ノ示威狀況, 發신: 兪島惣次郎,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5.; 일본외무성기록, (46), 電報譯 一日京畿長湍郡廳..., 發신: 朝鮮警務總長, 수신: 拓殖局長官, 119.04.05.; 기7, 朝鮮特報第九號, 騷擾事件二關スル狀況(1919.03.26~1919.04.05), 發신: 朝鮮軍參謀部, 1919.04.07.; 일본외무성기록, 秘受〇四一三五號, 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二關スル件(次官ヨリ侍從武官長二通牒)-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二關スル狀況(1919.04.01.~1919.04.06.간의 보고에 의함), 發신: 山梨半造(陸軍次官), 수신: 侍從武官長, 1919.04.10.; 소요사건경과개람표;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七一號, 公州地方法院, 1919.05.26.); 기1, 密第一〇二號其四五八/朝鮮第九四一號/軍事密第六〇號/軍歩第二八號, 朝鮮騷擾事件ニ於ケル死傷數ノ件報告(朝鮮騷擾事件 中 軍隊ノ鎮壓ニ從事セル時ノ彼我死傷表), 發신: 兪島宮太郎(朝鮮軍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9.29.; 조선소요사건일람표; 독립운동사, 146~7쪽; 한국독립사, 196쪽;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 1957, 174쪽.

12) 조선소요사건일람표.

13) 기7, 高第一〇三七一號(大正八年四月六日),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十九報), 發신: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수신: 長谷川好道(朝鮮總督) 外, 1919.04.06.; 기1, 密第一〇二號其一五八/朝鮮第九八號/第九〇號, 電報 四月五日ニ於ケル情況 其一, 發신: 兪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6.; 기1, 密第一〇二號其一六〇/第二四號, 電報 全國各地ノ示威狀況, 發신: 兪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6.; 기7, 朝鮮特報第九號(大正八年四月七日), 騷擾事件二關スル狀況(1919.03.26~1919.04.05), 發신: 朝鮮軍參謀部, 1919.04.07.(4월 4일은 4월 5일의 오기); 일본외무성기록, 電報 前電ノ外四日忠清南道洪城郡..., 發신: 朝鮮總督, 수신: 拓殖局長官, 1919.04.07.; 기1, 密受第一〇二號/陸密第一一九號, 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二關スル件(次官ヨリ侍從武官長二通牒)-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二關スル狀況(1919.04.01.~1919.04.06.간의 보고에 의함), 發신: 山梨半造(陸軍次官), 수신: 侍從武官長, 1919.04.10.; 일본외무성기록, (48), 電報譯 三日黃海安岳二暴民..., 發신: 朝鮮警務總長, 수신: 拓殖局長官, 1919.04.07.(四月五日忠南禮山口耳面ニテ四千ノ群衆...에서 '口耳面'은 '光時面'의 오기이다.); 소요사건경과개람표; 조선소요사건일람표; 독립운동사, 147쪽.

14) 일본외무성자료, 電報 前電ノ外四日忠清南道洪城郡..., 發신: 朝鮮總督, 수신: 拓殖局長官, 1919.04.07.; 조선소요사건일람표.

15)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七五號, 공주지방법원, 1919.05.19. 민제식); 독립운동사, 148쪽.

16) 일본외무성기록, 秘受〇四一一號/大正八年四月五日 高第一〇, 日三八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十八號), 1919.04.09.(接受); 소요사건경과개람표; 독립운동사, 147쪽; 3·1운동편, 353~4쪽, 만세 군중에 대해 '7백여 명의 장꾼들이었고(독립운동사), 면내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한다(《毎日申報》 1919년4월10일자 3면4단).

최승구(崔昇九) 등이 약 700여 명 군중과 함께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덕산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자, 만세 군중들은 구급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를 했다.¹⁷⁾

4월 5일 오후 3시경 예산 읍내 예산 시장에서 박대영(朴大永)은 20여 명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이끌었다.¹⁸⁾ 최문오(崔文吾, 文五) 등 시장 군중이 호응하며 50여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장 일대를 활보했다. 시장 일대로 확산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군중들도 증가해 4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장에서 예산헌병분대로 예산헌병분대로 이동했다. 이때 본정(本町)을 순시하던 헌병분대 헌병 상등병 증목추수(曾木秋秀)는 만세 군중들을 만나 제지하며 몇 차례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불응하며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므로 헌병은 주도 인사로 박대영을 주목하고 그를 체포하려 했다. 이에 박대영은 널판지를 휘둘러 저항했고 헌병의 곤봉 양쪽 끝을 붙잡고 자신과 곤봉 사이에 헌병을 밀어 넣어 헌병의 가슴에 충격을 가했다.¹⁹⁾ 또한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던 최문오(崔文吾, 文五)는 박대영을 체포하려는 증목헌병을 주먹으로 가격해 땅에 넘어뜨렸다. 오후 4시경 시장에서 다시 집합한 약 2,000명의 군중들은 시장 일대를 활보하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²⁰⁾ 이어 보병들이 출동해 헌병들과 합세하여 실탄을 발포하는 탄압을 자행함으로 만세 군중들은 해산했다.²¹⁾

2) 햇불독립만세운동

4월 3일 예산 신례원 신례원헌병주재소 부근에서 300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²²⁾ 이에 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해 만세 군중들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고 탄압함으로 군중들은 해산했다.²³⁾ 또한 예산면, 대술면, 신암면, 신양면의 각 마을에서 주민들 거의 전부가 참가하여 햇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²⁴⁾

4월 4일 오후 8시부터 광시면 등 예산 군내 18곳에서 면민들을 마을 산 위에서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²⁵⁾

《每日申報》에 의하면, ‘(사월) 사일 오후 열시경부터 레산면 대술면 오가면 신암면 고덕면 각리 신양면 일부 약 십오개소에서 각각 다수한 군중이 각각 봉화를 들고 소요를 하였다’ 고 보도했다. 즉 예산, 대술, 오가, 신암, 고덕면의 각 마을과 신양면 일부 마을 등 약 15개소에서 햇불독립만세를 전개했다.

(4월 4일) 대흥 대율리에서 정인하(鄭寅夏)가 마을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마을 동쪽 산 위에 올라가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²⁶⁾

22) 독립운동사, 145쪽. 독립운동사에는 ‘4월 3일 신례원리(新禮院里)의 장터에서 3백여 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당시 일제측의 기록으로 ‘신례원헌병주재소 부근’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위치(신례원리 장터, 헌병주재소 부근)와 독립운동 형태(독립만세운동, 햇불독립만세운동)가 다르다. 필자는 비록 일제측의 기록이지만 일제의 여러 기관의 보고 자료에는 본문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독립운동사에 전술의 기록에 이어 ‘예산면·대술면·신암면·신양면’의 햇불독립만세운동을 기록하는 있는 점으로 보아 일단 일제측의 기록에 근거해서 본문을 작성했다.

23) 일본의무성기록, 高第一〇,一三八號(大正八年四月五日),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十八號), 1919.04.09. ; 일본의무성기록, (47), 電報 一日 京畿長湍郡大南面事務所…, 발신:警務總長, 수신:拓殖局長官, 1919.04.05. ; 711, 密第一〇二號其一一五九/第一二號, 電報 全國各地ノ示威狀況, 발신:兎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6. ; 일본의무성기록, 秘受〇四〇三七號, 電報譯 前報ノ外三日忠清北道永同郡…, 발신:朝鮮總督, 수신:拓殖局長官, 1919.04.06. ; 717, 朝特報第九號(大正八年四月七日), 騷擾事件二關スル狀況(1919.03.26~1919.04.05), 발신:朝鮮軍參謀部, 1919.04.07. ; 711, 密受第一〇二號/陸密第一一九號, 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二關スル件(次官ヨリ侍從武官長二通牒)-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二關スル狀況(1919.04.01.~1919.04.06.간의 보고에 의함), 발신:山梨半造(陸軍次官), 수신:侍從武官長, 1919.04.10. ; 소요사건경과개람표 ; 조선소요사건일람표. 참가 군중에 대해, 수백명(일본외무성기록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8호), 일본의무성기록의 (47), 711의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717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 300명(소요사건경과개람표), 150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이 있다.

24) 독립운동사, 145·147쪽. 4월 3일 예산 군내 4개면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기록은 독립운동사에만 기록돼 있다. 독립운동사에는 이어 ‘다음 4월 4일 밤 예산읍을 중심으로 하여 … 햇불이 옮겨져 군내 각 면의 18개소에서 크게 시위가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제측의 보고 기록에는 4월 4일 햇불독립만세운동만 기재되어 있다.

25) 717, 高第一〇三七一號(大正八年四月六日),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十九號), 발신: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수신:長谷川好道(朝鮮總督)外, 1919.04.06. ; 711, 密第一〇二號其一一五八/朝特報第九號/第九〇號, 電報 四月五日ニ於ケル狀況 其一, 발신:兎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6. ; 《每日申報》1919년4월10일자 3면4단, 「충청남도-禮山-불을 들고 소요」; 독립운동사, 145쪽; 한국독립사, 197쪽. 한국독립사에 의하면, 15개소에서 8,000명이 참가했다.

26)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八號, 공주지방법원, 1919.05.30. 정인하); 독립운동사, 146쪽. 정인하는 20일 후 4월 24일 홍성군 결성면 옹호리 강진호(姜鎭瑚) 집에서 그에게 ‘이승만 등이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독립)운동을 한 결과 조선이 독립했으므로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번 이태황의 서거는 병사(病死)가 아니라 일본인이 독살(毒殺)한 것이다’라고 전해 독립운동의 전개와 고종 독살설을 주장하며 독립운동을 권유하기도 했다.

17) 711, 密受第一〇二號/陸密第一一九號, 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二關スル件(次官ヨリ侍從武官長二通牒)-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二關スル狀況(1919.04.01.~1919.04.06.간의 보고에 의함), 발신:山梨半造(陸軍次官), 수신:侍從武官長, 1919.04.10. ; 최승구 공훈록 및 포상자 공적조서(국가보훈처) 참조. 한내장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의 자료에 의하면 ‘천도교에서는 용리의 마기상이 손병희 선생의 지령을 받아 독립만세운동을 확산하였고, 각 마을 단위로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3월 29일 천도교인들이 덕산장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이는 전개 일자가 3월 29일과 4월 4일로 1주일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하면 천도교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18) 전개 과정의 시간대에 대해 시작 시간이 오후 1시경(매일신보), 오후 3시경(판결문(박대영, 최문오), 독립운동사(최문오는 4월 5일 하오 3시경 예산시장에서 박대영 외 약 50명과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며 동 시장을 누비고 다녔다)), 오후 4시경에 2,000여 명 참가(독립운동사)가 있다. 또 처음 독립운동 시작 때 만세 군중에 대해 50명(최문오 판결문), 20명(박대영 판결문)이 있다. 독립운동사(145쪽)에 박대영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하오 2시경이라 했으나 이는 판결문을 오독(誤讀)해 오기한 것이다.

19) 헌병의 곤봉은 길이가 3척(尺), 박대영 판결문으로 1m가 넘는 동등이었다(독립운동사, 146쪽).

20) 만세 군중에 대해 2,000여 명(독립운동사), 약 2,000명(711(전보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717(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9호),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 일본의무성기록, 소요사건개람일람표 3·1운동편, 한국독립사), 1,000명(711(전보 전국각지의 4월 6일 시위상황), 700명(711(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일본의무성기록), 400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이 있다.

21) 711, 密第一〇二號其一一五〇/第二四號, 電報 全國各地ノ示威狀況, 발신:宇島宮太郎(朝鮮軍司令官), 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6. ; 717, 高第一〇三七一號(大正八年四月六日)/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十九號), 발신: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수신:長谷川好道(朝鮮總督)外, 1919.04.06. ; 717, 朝特報第九號(大正八年四月七日), 騷擾事件二關スル狀況(1919.03.26~1919.04.05), 발신:朝鮮軍參謀部, 1919.04.07. ; 일본의무성자료, 電報 前電ノ外四日忠清南道共城郡…, 발신:朝鮮總督, 수신:拓殖局長官, 1919.04.07. ; 711, 密第一〇二號其一一六三/朝特報第九號/第九一號, 電報譯 四月六日ニ於ケル狀況, 발신:宇島宮太郎(朝鮮軍司令官), 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7. ; 일본의무성기록, (48), 電報譯 三日黃海安岳二暴民…, 발신:朝鮮警務總長, 수신:拓殖局長官, 1919.04.07. ; 일본의무성기록, 電報 前電ノ外四日忠清南道共城郡…, 발신:朝鮮總督, 수신:拓殖局長官, 1919.04.07. ; 일본의무성기록, 秘受第〇四一三五號, 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二關スル件(次官ヨリ侍從武官長二通牒), 발신:山梨半造(陸軍次官), 수신:侍從武官長, 1919.04.10. ; 소요사건경과개람표 ; 조선소요사건일람표 ; 3·1운동편, 357쪽 ;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八號, 공주지방법원, 1919.05.21. ; 大正八年刑控第五二三號, 경성복심법원, 1919.07.17. ; 大正八年刑上第七六七號, 고등법원, 1919.09.20. 박대영 ; 大正八年公第一四八號, 공주지방법원, 1919.05.09. ; 大正八年刑控第四七六號, 경성복심법원, 1919.07.03. ; 大正八年刑上第六三二號, 고등법원, 1919.09.06. 최문오) ; 《每日申報》1919년4월1일 3면5단, 「충청남도-禮山-두명이 죽었다」; 독립운동사, 145~6쪽 ; 한국독립사, 197쪽. 한국독립사에 의하면, 4월 5일 예산에서 3건의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① 1곳에서 3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쳐 2명이 사망했고 ② 5곳에서 다수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③ 1곳에서 2,0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쳐 5명이 부상을 당했다. ②은 예산 읍내의 4개소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 ③은 예산 읍내의 독립만세운동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①은 확인되지 않는다.

(4월 4일) 신양 연리에서 성원수(成元修, 允京)가 마을 주민 10여 명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²⁷⁾

4월 5일 예산 읍내에서는 4월 4일 햇불독립만세운동에 이어 오후 8시경 읍 남면(남쪽) 형제고개, 서쪽 관영산, 북쪽 금오산, 동쪽 시산의 4개소에서 다수의 군중들이 불을 들고(擧火) 독립만세를 외쳤다.²⁸⁾

4월 5일 삽교 목리에서 박성식(朴性植)이 마을 주민 약 40명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²⁹⁾ 이상의 예산지역의 3·1 독립운동을 정리하면 <표1> 예산지역 3·1 독립운동의 전개 상황과 같다.

<표1> 예산지역 3·1 독립운동의 전개 상황

일자	장소	주도 인사	주요 사항	전거	비고
3.3.	예산 읍내	윤철영	5명, 동쪽 산, 만세	도장관보고철, 독립운동사	
3.9.	예산 읍내		헌병의 사전 탄압	일람표	
3.13.	대흥 동서리	학생	전교생300여명, 대흥시장, 만세	기4, 기7, 일본외무성기록, 개람표, 독립운동사	
3.21.	예산 읍내		헌병의 사전 탄압	일람표	
3.31.	예산 읍내	야소교 신자(부인)	5~60명, 예산시장, 만세, 헌병분대, 군청 이동	기1, 기7, 일본외무성기록, 개람표, 매일신보, 독립운동사, 한국독립사	
4.3.	예산군 내 4개면	주민	예산, 대술, 신암, 신양면 면내 마을 주민, 햇불만세	독립운동사	
	예산 신례원	군중	300명, 헌병주재소 부근, 햇불만세	기1, 기7, 일본외무성기록, 개람표, 조일람표, 독립운동사	
	고덕 대천리	인한수, 장문환	2~3,000명, 한천시장, 만세	기1, 기7, 일본외무성 기록, 개람표, 일람표, 판결문, 매일신보, 독립운동사, 한국독립사	
4.4.	대술 산정리	민제식	약 30명, 구한국기, 만세	기1, 판결문, 독립운동사	
	덕산 읍내리	군중	약 30명(700명), 덕산시장, 만세	일본외무성기록, 개람표, 독립운동사	
	광시 하장대리	군중	250명, 만세	일본외무성기록, 일람표	
	예산군 내	군중	오후 8시부터 광시면 등 18곳 햇불만세 (15곳, 8,000명)	기1, 기7, 일본외무성기록, 매일신보, 독립운동사, (한국독립사)	
		광시	군중	오후8시 면내 햇불만세	일본외무성기록, 독립운동사
	대흥 대울리	정인하	수십 명 주민, 동쪽 산, 햇불만세	기1, 판결문, 독립운동사	
	신양 연리	성원수	10여명, 뒷산, 햇불만세	기1, 판결문, 독립운동사	
4.5.	예산 읍내리	박대영, 최문오	약2,000명, 예산시장, 만세	기1, 기7, 일본외무성기록, 개람표, 일람표, 판결문, 독립운동사, 한국독립사	
	예산 읍내	군중	형제고개, 관영산, 오산, 시산 4개소 햇불만세	매일신보, 독립운동사	
	광시 광시리	군중	오전3시 약4,000명, 면사무소 공격	기1, 기7, 일본외무성기록, 독립운동사	
	광시 하장대리	군중	40명, 만세	기1, 일본외무성기록, 일람표	
	삽교 목리	박성식	약 40명, 뒷산, 햇불만세	판결문	
5.8.	신양 연리	성원수	헌병 보조원 응징	판결문, 독립운동사	

27) 기1, 密受第一〇二號其一五八(朝鮮特第八八號/第九〇號, 電報 四月五日二於ケル情況 其一, 발신: 兒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6. ;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四號, 공주지방법원, 1919.05.26. : 大正八年刑控第五五號, 경성복심법원, 1919.07.19. : 大正八年刑上第七八七號, 고등법원, 1919.09.25., 성원수) ; 독립운동사, 148쪽.

28) 《毎日申報》1919년4월10일자 3면4단, 「충청남도-禮山-불을 들고 소요」; 독립운동사, 145쪽. 전개 일자에 대해 매일신보는 4월 5일로 보도, 독립운동사는 4월 4일로 기록하고 있다. 매일신보는 4월 10일자 보도에 '사일 오후 열시경부터 레산면, 대술면 ... 약 15개소'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보도에 이어 '(사월) 오일에는 ... 동일 오후 팔시경에는 또 레산군 읍 남면 형제고개와 ... 다수한 군중이 거화하고 소요하였으므로 ... 부득이 바로 해산을 하자 또한 비가 옴으로 모다 헤어졌다 더라'라고 구체적 사실을 보도한 점으로 보아 4월 4일과 4월 5일 2일에 걸쳐 예산 읍내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29)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四〇號, 공주지방법원, 1919.04.10. 박성식), 박성식은 다음날 4월 6일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엄중삼(嚴仲三) 집에서 김헌식(金憲植)에게 음주를 권했으나 거부함에 '너는 어째서 흑립(黑笠)을 쓰고 다니느냐? 어째서 만세를 부르지 않느냐! 형편없는 무례한 놈이다'고 힐책하고 흑립을 빼앗아 망가뜨리고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뺨을 구타했다.

* 전거 ; 기1은 大正八年乃至同十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七册其一, 기4는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七册其四, 기7은 大正八年乃至同十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七册其七, 도장관보고철은 朝鮮騷擾事件二關スル道長官報告綴 七册ノ内二, 일본외무성기록은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八, 개람표는 기7의 騷擾事件報告臨時報第十二號의 騷擾事件經過概覽表, 일람표는 기1의 朝憲警一〇七號, 朝鮮騷擾事件一覽表二關スル件임.

3. 3·1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일제는 식민지 탄압 기구로 예산에 헌병대를 배치했다. 예산에는 헌병분대 1개소와 헌병주재소 7개소가 설치되었다.³⁰⁾ 이들 헌병들에 의해 예산 군민들은 식민 통치 지배를 받았고 3·1 독립운동도 탄압을 받았다.

3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읍내 동쪽에서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예산헌병분대 헌병들이 출동해 5명을 체포했다. 헌병들은 분대에서 취조해 본 결과, 이들이 평소 온순하여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영위하고 학식 소양이 전혀 없는 자들이며 일찍이 불온 과격한 언동을 행한 일이 없었던 자로 판단해 엄중 훈계를 방면했다.³¹⁾

3월 13일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대흥헌병주재소 헌병들이 대흥 시장으로 즉각 출동해서 주도 학생 3명을 체포함으로 학생들은 해산했다.³²⁾

3월 31일 예산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예산헌병분대 헌병들이 출동해 헌병대로 이동하는 군중의 주도 인사 6명을 체포하고 탄압함으로 만세 군중들은 해산했다.³³⁾ 또한 공주수비대에서는 예산 독립만세운동을 제압하고 사전 방비를 위해 보병 하사 이하 7명이 파견되어 헌병들과 활동했다.³⁴⁾

4월 3일 고덕 한천(대천)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으로 대천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해 제지하자, 군중들은 불응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헌병들이 총을 발포하려는 과정에서 군중들과 충돌해 인한수가 사망했다. 군중들은 시신을 주재소로 운구하고 헌병들과 대립하며 주재소장을 구타하기도 있다. 이어 홍성 80년대 하사 이하 7명이 고덕으로 출동했다.³⁵⁾ 대천헌병주재소 헌병들은 출동한 헌병과 협력해 주도 인사 7명을 체포했다. 이어 군중들이 구금 인사들을 구출하려고 헌병주재소로 사무실로 진입했다. 이에 헌병과 보병들은 군중들을 향해 발포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³⁶⁾

30) 헌병대는 예산헌병분대(예산면), 대천헌병주재소(고덕면), 덕산헌병주재소(덕산면), 광시헌병주재소(광시면), 대흥헌병주재소(대흥면), 응봉헌병주재소(응봉면), 신양헌병주재소(신양면), 신례원헌병주재소(예산면)이다.

31) 도장관보고첩(忠南秘第98號) ; 독립운동사 145쪽.

32) 기7, 高第7097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十五號), 발신: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수신: 長谷川好道(조선총독) 외, 1919.03.14. ; 독립운동사, 146쪽.

33) 기7, 高第九七二二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四號), 1919.04.01. ; 기11, 密第一〇二號其一七二/第五七號, 電報: 全國各地 / 示威狀況, 1919.04.01. ; 《매일신보》1919년4월6일 3면6단, 「충청남도-禮山-사오인 테포됨」; 독립운동사 145쪽. 체포 인원: 5명(한국독립사, 193쪽), 남녀 4~5명(매일신보), 남녀 신도 6명(한내장4·3만세운동기념사업회의 자료)이다.

34) 기7, 朝鮮特報第九號, 騷擾事件二關スル狀況, 1919.04.07.

35) 기11, 密第一〇二號其四五八/朝鮮副第九四一號/軍事密第六〇號/軍步第二八號, 朝鮮騷擾事件二於ケル死傷數 / 件報告(朝鮮騷擾事件中 軍隊 / 鎮壓二從事セル時 / 彼我死傷表), 발신: 宇島宮太郎(朝鮮軍司令官), 수신: 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9.29.

36) 기7, 高第九八三三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七號), 1919.04.04. 사상자에 대해 사망 1명과 부상 2명(기11의 조선소요사건의 사상 수 건 보고(군대가 진압에 종사한 사건의 사상수표); 소요사건일람표; 《每日申報》(1919년4월11일자 3면7단, 「禮山-직사자 일명」); 한국독립사, 사상자 각 1명(구금 인사 구출 과정, 기7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기11의 4월 3일의 시위상황1; 기2의 4월 3일의 시위상황2; 기7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 기1의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일본외무성기록(전보역)의 1919.04.05. ; 기7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 독립운동사, 사상 2명(기7의 소요사건경과개람표), 다소 사상자(일본외무성기록(전보)의 1919.04.05.), 약간의 사상자(기11의 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4월 3일), 사상자 발생(일본외무성기록)의 1919.04.09 ; 기11의 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4월 2일) 등이 있다. 검거 인원: 7명(기7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 《每日申報》(1919년4월11일자 3면7단, 「禮山-직사자 일명」), 8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이 있다.

장문환은 체포 구금되어 재판에 회부되어서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의 형벌을 당했다.³⁷⁾

(4월 3일) 예산 신례원헌병주재소 부근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에 대해 헌병들이 출동해 주도 인사 3명을 체포하고 만세 군중들을 해산시켰다.³⁸⁾ 또한 일제는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려는 형세를 파악하고 예산에서 헌병 5명을 신례원으로 파견해 경계를 강화했다. 이에 군중들은 자진해서 해산했다.³⁹⁾

4월 4일 예산 읍내 4개소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에 대해 헌병들이 출동해 발포하고 날씨도 비가 내리는 우중(雨中)임으로 만세 군중들은 해산했다.⁴⁰⁾

(4월 4일) 대술 산정리에서 민체식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 산에서 구한국기를 세우고 한국독립만세를 외쳐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태90의 형벌을 당했다.⁴¹⁾

(4월 4일) 대흥 대율리에서 정인하가 주민들과 함께 마을 동쪽 산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해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의 형벌을 당했다.⁴²⁾

(4월 4일) 덕산 읍내리 덕산시장에서 약 30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쳐 덕산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해 주도 인사 3명을 체포했다.⁴³⁾ 만세 군중들은 구금 인사들을 구출하고자 주재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구금 인사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헌병들이 발포하며 체지함으로 군중들은 해산했다.⁴⁴⁾

(4월 4일) 신양 연리에서 성원수의 주도로 10여명의 주민들을 마을 뒷산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후 한달 여 후인 5월 8일 신양헌병주재소 헌병보조원 박동진(朴東鎭)이 보안법 위반죄로 성원수를 체포하려 왔다. 성원수는 헌병의 체포를 거부하고 집에서 뒤쳐나가 피신하려 했으나 박동진이 계속 추적함으로 격투를 전개했다. 그는 박동진을 논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과 복부를 가격하는 등 박동진을 응징했다. 하지만 성원수는 체포를 당해 보안법 위반과 상해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⁴⁵⁾

37)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七一號, 공주지방법원, 1919.05.26. 장문환)

38) 조선소요사건일람표.

39) 일본외무성기록, 高第一〇,一三八號(大正八年四月五日),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十八號), 1919.04.09.

40) 《每日申報》1919년4월10일자 3면4단, 「충청남도-禮山-불을 들고 소요」.

41)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七五號, 공주지방법원, 1919.05.19. 민체식)

42)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八號, 공주지방법원, 1919.05.30. 정인하)

43) 일본외무성기록, 密受〇四一一號/大正八年四月五日 高第一〇,日三八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十八號), 1919.04.09.(接受).

44) 독립운동사, 147쪽.

45)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四號, 공주지방법원, 1919.05.26. : 大正八年刑控第五一號, 경성복심법원, 1919.07.19. : 大正八年刑上第七八七號, 고등법원, 1919.09.25., 성원수); 독립운동사, 148쪽.

4월 5일 오전 3시 광시 광시리에서 4,000명의 군중들이 면사무소를 공격했을 때, 광시헌병주재소 헌병들이 공포탄을 발포하며 진압함으로 만세 군중들을 해산했다.⁴⁶⁾ 이어 하장대리에서 40명이 독립만세를 외치자, 헌병들이 출동해 주도 인사 9명을 체포하는 탄압을 함으로 만세 군중들은 해산했다.⁴⁷⁾

(4월 5일) 삽교 목리에서 박성식은 주민 약 40명을 이끌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이어 다음날 4월 6일 오후7시경 홍성 홍북의 상하리 최중삼(崔仲三) 집에서 김헌식(金憲植)의 흑립을 파손하고 구타하는 활동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보안법 위반과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6월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⁴⁸⁾

(4월 5일) 예산 읍내 예산 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헌병들이 제지했으나 만세 군중들이 불응하며 계속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했다. 헌병들은 주도 인사로 박대영을 지목하고 체포하려고 시도했으나 박대영이 저항하고 이어 최문오까지 가세해 체포를 가로막았다. 이어 보병들이 출동하여 헌병에 가세해 실탄을 발포해 군중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9명이 체포를 당함으로써 만세 군중들은 해산했다. 이후 헌병들의 체포 활동으로 전부 35명이 체포를 당했다.⁴⁹⁾ 주도 인사 박대영과 최문오는 각각 별건의 재판에 회부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공소를 제기해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에도 형량은 징역1년을 선고받아 고등법원에서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 기각으로 형이 징역1년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⁵⁰⁾

3월 9일, 3월 21일 예산 읍내 예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움직임은 사전에 탐지한 예산헌병분대 헌병들에게 제압을 당했다.

이상의 일제의 탄압을 정리하면 <표2> 예산지역 3·1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상황과 같다.

<표2> 예산지역 3·1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상황

일자	장소	탄압 상황	피해 상황	비고
3.3.	예산 읍내	헌병	5명 체포, 훈계 방면	
3.9.	예산 읍내	헌병		사전 탄압
3.13.	대흥 동서리	헌병	3명 체포	
3.21.	예산 읍내	헌병		사전 탄압
3.31.	예산 시장	헌병/공주 보병 7명 출동	6명 체포	
4.3.	고덕 대천리	헌병/홍성 보병 7명 출동/ 발포	1명 사망, 2명 부상, 7명 체포	
	예산 신례원	헌병/예산 헌병 5명 출동	3명 체포	
4.4.	예산 읍내	헌병/발포		
	대술 산정리	헌병	1명 체포	
	대흥 대울리	헌병	1명 체포	
	덕산 읍내리	헌병/발포	3명 체포	
4.5.	광시 광시리	헌병/공포탄 발포		
	광시 하장대리	헌병	9명 체포	
	삽교 목리	헌병	1명 체포	
	예산 읍내	헌병/보병 출동	6명 사망, 3명 부상, 9명 체포 (최종 35명 체포)	
5.8.	신양 연리	헌병	1명 체포	

체포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으로 <표3> 예산지역 3·1 독립운동의 재판 상황과 같다.

<표3> 예산지역 3·1 독립운동의 재판 상황

일자	장소	성명	형량	판결청	판결일자	비고
4.3.	고덕 대천리	장문환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7.19.	애족장(1992)
4.4.	신양 연리	성원수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5.26.	애족장(1992)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9.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5.	
	대술 산정리	민제식	태 90	공주지방법원	1919.05.19.	대통령표창(2010)
	대흥 대울리	정인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5.30.	
4.5.	예산 읍내	박대영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5.21.	애족장(1990)
			징역 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17.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0.	
		최문오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5.09.	애족장(1990)
			징역 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03.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06.	
	삽교 목리	박성식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30.	대통령표창(2011)

46) 기7, 高第一〇三七一號(大正八年四月六日),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三十九報), 발신: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수신:長谷川好道(朝鮮總督)外, 1919.04.06.; 소요사건경과개람표; 독립운동사, 147쪽.

47) 조선소요사건일람표.

48)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四〇號, 공주지방법원, 1919.04.10., 박성식).

49) 사상자에 대해 사망 6명(기1의 전보 전국각지의 4월 6일 시위상황), 2명(《每日申報》 1919년4월8일자 3면5단, 「충청남도-禮山-두명이 죽었다」), 중상자 4~5명(《每日申報》 1919년4월10일자 3면4단, 「충청남도-禮山-불을 들고 소요」), 부상 3명(기1의 전보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기7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9보), 기7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일본외무성기록(48), 독립운동사), 약간(기1의 전보 전국각지의 4월 6일 시위상황, 기1의 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일본외무성기록(비수04135호)), 5명(한국독립사), 9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 사상자 발생(일본외무성기록(비수04135호)), 사상자 3명(소요사건경과개람표), 사상자(기1, 조선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건)가 있고, 체포에 대해 3명(기1의 전보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기7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9보), 일본외무성기록(48)), 9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 35명(기1의 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일본외무성기록(비수04135호), 독립운동사) 등이 있다.

50) 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一號, 공주지방법원, 1919.05.21.; 大正八年刑控第五二三號, 경성복심법원, 1919.07.17.; 大正八年刑上第七六七號, 고등법원, 1919.09.20., 박대영; 大正八年公第一四八號, 공주지방법원, 1919.05.09.; 大正八年刑控第四七六號, 경성복심법원, 1919.07.03.; 大正八年刑上第六三二號, 고등법원, 1919.09.06., 최문오).

일제의 탄압과 관련해 각 면사무소에 현전하는 수형 기록에서 태형을 당한 인사들이 확인된다.⁵¹⁾

예산헌병분대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받은 인사로 신양면의 수형인명표폐기목록에 6명,⁵²⁾ 봉산면의 범죄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18명, 응봉면의 범죄인명부에 12명, 신암면의 범죄인명부에 20명, 합계 56명이 있다.⁵³⁾ 신양면에서는 4월 22일 1명(태 90), 5월 8일 2명(태60), 5월 10일 3명(태 60), 봉산면에서는 4월 7일 2명(태60), 4월 8일 1명(태60), 4월 19일 4명(태60) 1명(태90), 4월 23일 5명(태90), 4월 27일 1명(태90), 4월 29일 1명(태90), 5월 2일 3명(태90), 응봉면에서는 4월 25일 7명(태90), 4월 28일 3명(태90), 4월 29일 1명(태60), 기타 1명(태60),⁵⁴⁾ 그리고 신암면에서는 4월 7일 1명(태60), 5월 6일 9명(태60), 5월 8일 8명(태60), 5월 9일 2명(태60)이 태형을 당했다.

기존의 연구 결과로 태형의 처분과 실행은 참가자에 대한 체포와 태형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 면 단위의 체포와 태형 처분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점, 동일 태형 처분 일자에 대부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 예산군의 경우에도 신양면은 19일간에 3일(회), 봉산면은 26일간에 7일(7회), 신암면은 33일간에 4일(회), 응봉면은 5일간에 3일(3회)에 즉결처분이 자행됐다. 면 단위로 5일, 19일, 26일, 33일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태형이 있었다. 봉산면 마교리 3회(일), 금치리 2회(일), 신암면 중경리 2회(일), 탄중리 2회(일), 응봉면 주령리 2회(일)을 제외하고 신양면 6리, 봉산면 2리, 신암면 11리, 응봉면 9리에서는 같은 일자에 같은 형량의 태형을 당했다.⁵⁵⁾

국가기록원의 형사사건부에 의하면, 광시의 권병기(權炳譏, 20), 대흥의 김용태(金容泰, 21), 신양의 김이기(金利基, 21), 박동복(朴同福, 20), 응봉의 정옥섭(丁玉燮, 20), 이희주(李義周, 18), 김동욱(金東旭, 20) 등 7명이 4월 2일 대전지방검사국 공주지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동서리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으로 3월 13일 대흥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흥 헌병주재소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공주검사국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인다.⁵⁶⁾ 또한 고덕의 방계환(方季煥, 41), 이종갑(李鍾甲, 44)은 5월 9일 공주지청에서 기소 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4월

3일 장문환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사로 보인다. 그리고 대술 산정리의 이기선(李起先), 이명진(李明鎭)은 5월 14일 공주지청에서 기소 중지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4월 4일 산정리에서 민제식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사들로 민제식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헌병들에게 체포되지 않아 기소 중지가 되고 민제식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5월 19일 태 90를 선고받았다.

이외 충남 예산군 고도면 갑리의 이경현(李景憲, 24)은 보안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에 유치 중에 1919년 11월 2일 오후 6시경 침구류를 넣어 주려는 간시 순사가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해 3명이 유치장을 탈출했다. 간시 순사가 비상 신호를 발동해 수 명의 일경들이 출동해 바로 2명은 체포를 했으나 이경현은 무사히 탈출했다.⁵⁷⁾

4. 3·1 독립운동의 의의

예산지역의 3·1 독립운동은 3월 3일 충남지방의 3·1 독립운동사에 첫 독립만세를 외쳤다. 지방의 3·1 독립운동은 독립선언서 추진 세력과의 연계, 독립선언서의 전달 및 배포에 따라 전개됐다. 충남 지방은 독립선언서 추진 세력과 연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월 2일 오후 6시 논산 육정의 천도교구실에 전북 익산 함열천도교구원 민영순(閔泳淳)이 독립선언서 2묶음(약 40매)를 가져 와 김태호(金泰昊)와 이백순(李伯純)에게 전달했다. 김태호는 한 묶음을 가지고 부여로 가서 오후 9시경 부여 천도교구실에서 김중석(金鍾錫), 황우열(黃宇烈), 박성요(朴性堯), 이범인(李範仁) 등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3월 3일 논산, 부여에서 군내 천도교 교도들에게 마을 거리에서 독립선언서를 교부하거나 배포했다. 하지만 타 지방과 달리 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3월 3일 윤철영 등 5명이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며 ‘일본 기타 경성 방면에서 유학생 및 기타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친 것으로 담화를 나누고 오후 11시 30분경 예산 읍내 동쪽 산 위에 올라 충남지방 최초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둘째로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예산지역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결의하고 세력을 결집해 다수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은 3월 13일 대흥공립보통학교 300명 학생들이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충남지방에서 최초의 학생 독립만세운동은 3월 10일 당진 면천에서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 정문과 면천경찰관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3월 11일 아산에서 온양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3월 14일 천안 목천에서 목천공립보통학교 120명 학생들이 교정에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치며 학교 부근을 활

57) 《每日申報》 1919년 11월 7일자 3면 6단, 「保安 犯人 脫監」.

51) 이하의 내용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서 '전국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필자가 예산군내 각 면을 답사 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자료이다.

52) 실제로는 7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박대영은 재판에 회부된 인사이다.

53) 김진호, 「충남지방의 햇볕독립만세운동」,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한국사연구회편, 2019, 331~4쪽 참조.

54) 기타 1명(태60)은 정대홍(丁大洪)으로 즉결처분일자가 4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 4월 1일은 예산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활발하지 않았고 더우기 타지역의 태형 처분은 독립운동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이후에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4월 1일'은 오히려 '기타 1명'으로 기재했다.

55) 단지 봉산면에서 4월 19일 금치리 인사 5명이 태60 4명, 태90 1명으로 형량이 다른 사례가 있다.

56) 처분 일자가 4월 2일로 기재되어 있다. 지방에서 독립운동으로 체포 구금되어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검사의 신문과 결정(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되기 까지 최소한 20일 전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4개 면의 인사들이 타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참여해 검사국에 송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3개면이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고, 20세 전후의 연령이며, 4월 2일 이전에 예산에서 독립만세운동은 3월 13일 대흥 학생독립만세운동만 있었으므로 따라서 이들은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으로 보인다. 다른 사례로 충남의 학생독립만세운동을 최초로 전개한 3월 10일 당진 면천공립보통학교 학생 원용은(元容殷), 박창신(朴昌信)은 3월 31일 공주검사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했다. 이들 학생들의 독립만세운동은 각 지역에서 전개된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으로 그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셋째로 연령층으로 3~40대 인사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주도 인사들 가운데 덕산의 최승구(23), 대흥의 정인하(29)를 제외하고 30대와 40대의 중장년층이 주민들과 군중들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30대로 고덕의 장문환(33), 신양의 박대영(37), 광시의 박성식(37)이고 40대로 고덕의 최문오(44), 신양의 성원수(46), 대술의 민제식(49) 등이 있다.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20세 전후로 독립만세를 외친 것과 같이 10대의 학생들이나 20대 청년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른 지역에 비해 예산지역은 중장년층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들은 20대와 30대에 일제의 의해 국권을 침탈 당하고 이어 한 집안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시기에 일제의 식민지 직접지배체제를 겪으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어느 세대보다도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독립을 주장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넷째로 주도 인사들은 명문 집안의 후손으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영향력이 있었던 인사들이었다. 박대영은 영해 박씨로 조선 전기에 증판중부 박치안(朴致安)이 사육신 사건이 있는 후 낙향하여 신장면 죽천리로 입향해 세거한 후손이다. 장문환은 인동 장씨로 조선 중기에 삼교 평촌리로 입향해 13대째 세거하고 있던 집안의 인물이었다. 성원수는 창녕 성씨로 중선 중기 삼괴당 성흔(成欣)이 광해군의 학정을 피해 신양 연리(귀곡리, 불원리)로 입향해 14대째 세거하고 있었다. 민제식은 여흥 민씨 집안으로 대술 산정리에서 세거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들은 거주지 마을에서 여러 대를 거쳐 세거해 온 집안의 후손으로 유학적 학풍을 가진 인사들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지역민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로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다섯째로 독립만세운동에서 주도 인사나 참여 인사로 종교인들도 활동했다. 3월 31일 예산 읍내 독립만세운동에서 야소교(기독교) 신자 부인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 시장 군중들이 호응해 독립만세를 함께 외쳤다. 이외 3월 29일 덕산 시장에서 천도교 교도들이, 4월 3일 고덕 한내(대천) 시장에서 천주교 신도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전해진다.

여섯째로 독립운동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전개됐다. 충남지방의 3·1독립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활발하게 전개됐다. 특히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독립만세를 외쳤다. 예산지역은 3월 3일 최초로 독립만세를 외친 후 3월 13일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3월 9일과 21일 2차례의 독립만세운동을 시도하였지만 일제 헌병들에게 사전에 탐지되어 진압됨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3월 31일 예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재점화되면서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 군내 전체 12개면에서 독립만세운동과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⁵⁸⁾ 4월 3일 고덕 대천리에서 독립만세운동과 예산 신례원리

58) 같은 사례로 인접한 청양군에서도 4월 3일 운곡 미량리에서 사전에 제지된 후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동안 집중적으로 3·1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등 군내 예산면, 대술면, 신암면, 신양면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4월 4일 대술 산정리, 덕산 읍내리, 광시 하장대리에서 독립만세운동과 광시, 대흥 대율리, 신양 연리 등 예산 군내 18곳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4월 5일 예산 읍내리, 광시 광시리와 하장대리에서 독립만세운동과 예산 읍내 4개 산, 삼교 목리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일곱째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3월 중순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중부지방으로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그에 따른 일제의 탄압도 심해지면서 3·1독립운동에 있어 새로운 발전적 형태로 등장한 것이 횃불독립만세운동이었다. 3월 23일 충북 청주와 충남 조치원·연기 일대에서 각 면, 각 마을, 군계(郡界)와 도계(道界)를 넘어 연합독립운동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됐다. 이 독립운동은 이후 연기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점차 충남의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아산, 홍성, 청양 등지에서 활발히 전개됐다.⁵⁹⁾

4월 3일 예산 신례원리 현병주재소 부근에서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를 외쳤고, 군내 대술면, 신암면, 신양면에서도 면민들이 횃불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4월 4일에는 오후 8시부터 광시면에서 횃불독립만세를 불렀고 대흥면과 신양면에서도 주도 인사들이 주민들을 이끌고 마을 산에 올라 횃불독립만세를 외쳤으며, 군내 예산면, 오가면, 신암면, 고덕면 등 각 마을의 18곳에서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예산 읍내 주위의 4 방향의 산에서, 삼교 목리에서도 마을 뒷산에서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 같이 예산지역에서는 4월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연속해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여덟째로 군내 12개 면의 면민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3·1독립운동의 전개가 기록된 면으로 예산면, 대흥면, 고덕면, 대술면, 덕산면, 광시면, 신양면, 신암면, 오가면, 삼교면 등 10개면이다. 하지만 봉산면, 응봉면 면민들도 일제에게 탄압을 당한 수형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이로써 12개면의 면민들은 독립만세를 외치거나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3·1독립운동에 참가했다. 이 독립운동으로 예산현병분대나 현병주재소 헌병들에게 현장에서 탄압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고 체포 구금되어 갖은 고문을 당했으며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맞았으며 검사국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되기도 했으나 재판에 회부되어 형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59) 김진호, 2019, 334~8쪽 참조.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예산지역의 3·1독립운동은 3월 3일 독립만세를 외친 후 5월 8일 헌병보조원을 응징하기까지 67일간에 걸쳐 전개됐다. 독립만세를 외친 독립만세운동이 9회,⁶⁰⁾ 햇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27회,⁶¹⁾ 헌병보조원을 응징한 독립운동이 1회 등 37회에 걸쳐 3·1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독립운동에는 예산 읍내(예산면), 대흥면, 대술면, 오가면, 신암면, 신양면, 고덕면, 덕산면, 광시면, 삽교면, 봉산면, 응봉면 등 예산 군내 12개 면의 면민들이 참가했다. 참가 인원은 최소 5,600명에서 최고 10,300여명, 햇불독립만세운동에 8,340명이 참가하여 전체 최소 14,000명에서 최고 19,000명으로 추계된다.⁶²⁾

일제의 탄압으로 7명이 순국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75명이 체포되어 구금을 당했다. 체포된 인사들 가운데 7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태 90 1명, 징역 6월 2명, 징역 1년 3명, 징역 1년6월 1명이 형량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태형을 당하거나 옥고를 겪었다. 또한 예산헌병분대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받은 인사로 신양면의 수형인명표폐기목록에 6명,⁶³⁾ 봉산면의 범죄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18명, 응봉면의 범죄인명부에 12명, 신암면의 범죄인명부에 20명, 합계 56명이 있다. 이들 인사들은 4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4일간에 14일(회)에 태60~태90의 태형을 당했다. 그리고 예산헌병분대에서 공주검사국으로 송치되어 검사의 신문 조사가 있는 후 4월 2일 7명은 증거불충분, 5월 9일 2명은 기소 유예, 5월 14일 2명은 기소 중지로 각각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석방되기도 했다.

예산지역의 3·1독립운동은 3월 3일 윤철영 등이 충남지방에서 최초로 독립만세를 외쳤고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또한 3월 31일 예산 읍내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재점화된 3·1독립운동에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역적 기반을 가진 3~40대의 중장년층의 주도로 종교인이나 12개 면의 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충남지방의 대표적인 3·1독립운동으로 햇불독립만세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마지막으로 최대의 민족독립운동인 3·1독립운동사에서 예산지역의 3·1독립운동이 자리 맺음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있기를 기대한다.

60) 독립만세운동으로 3월 3일, 3월 13일, 3월 31일, 4월 3일, 4월 4일 3회, 4월 5일 3회 등 9회이다.

61) 햇불독립만세운동으로 4월 3일 4개면의 전개를 각면 1회로 4회, 4월 4일 예산 군내 18곳에서 전개를 각곳 1회로 18회, 4월 5일 읍내 4곳을 각 1회로 4회와 삽교 목리 1회로 5회 등 27회이다.

62) 예산지역의 3·1독립운동의 전개 상황(표)과 각주의 참가 인원수에 의하면, 참가 인원은 독립만세운동에 최소 5,605명, 최고 10,385명이었고 햇불독립만세운동에 8,340명이다. 이를 합산하면 최소 13,945명, 최고 18,725명이다. 5월 8일 성원수의 헌병보조원 응징으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3일 예산 군내 4개면과 4월 5일 예산 읍내 4개소의 햇불독립만세운동에 참가 인원의 기록이 없다. 또한 4월 4일 군내 18개소에서 참가한 8,000명(한국독립사)의 인원이 기록되어 대흥 대울리 수심평과 신양 연리의 10여 명은 합산하지 않았다. 4월 3일 예산 신례원의 300명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산지역의 3·1독립운동에 참가 인원은 최소 수치로 추산하더라도 최소 14,000명, 최고 19,000명으로 추산된다.

63) 실재는 7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박대영은 재판에 회부된 인사이다.

충남학 특강

문화유산으로 보는 예산 역사

윤 용 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 차	1. 예산의 문화유산
	2. 덕산, 가야산은 내포의 중심
	3. 대흥, 부흥운동의 봉화를 올린다
	4. 예산, '고려 1100년'
	(부) 예산 연표

1. 예산의 문화재

충남도의 지정문화재 통계(2016년 현재)에 의하면 시군별로는 공주시와(국가지정 47, 도 지정 74, 문화재자료 31)와 부여군이(국가지정 52, 도 지정 56, 문화재자료 44) 각 152건, 논산시 95건(국가지정 16, 도 지정 45, 문화재자료 34), 예산군 87건(국가지정 14, 도 지정 38, 문화재자료 32) 등의 순이다. 충남도내 지정문화재 수량의 시군별 현황은 별표와 같다.

(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역별 현황 (2016.5)

시·군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합계	비고
천안시	14	22	27	63	
공주시	47	74	31	152	
보령시	8	24	20	52	
아산시	15	27	25	67	
서산시	19	29	21	69	
논산시	16	45	34	95	
계룡시	0	4	4	8	
당진시	10	17	7	34	
금산군	5	17	20	42	
부여군	52	56	44	152	

서천군	9	17	15	41	
청양군	10	18	10	38	
홍성군	9	28	19	56	
예산군	14	38	31	87	
태안군	6	13	6	25	
합계	238	429	314	981	

예산군의 문화재 보유 현황은 충청남도에서 네 번째 순위이지만, 내포지역에서는 단연 첫 번째라는 점이 주목된다. 2005년부터 10년 동안에 걸쳐 추진된 내포문화권 개발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역사 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예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기초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포권을 대표할만한 향토 역사 자원’ 에서 역사·유적 자원 1위에 임존성, 인물자원 1위에 추사 김정희, 기타 자원 1위에 남연군 묘가 선정되었으며, 그 밖에 인물자원 2위에 윤봉길, 불교자원 2위에 수덕사가 선정되어 타 시군 대비 역사문화 자원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준 바 있다.

한편 공주, 부여의 경우는 2015년에 ‘백제역사유적지구’ 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2018년 공주의 마곡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개 사찰의 하나로, 그리고 논산에서는 2019년 ‘한국의 서원’ 9곳 중의 하나로 둔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다음 순서는 예산군이어야 할 것 같다. 예산군의 어떤 문화재가 그 후보가 될 수 있을까.

2. 덕산, 가야산은 내포의 중심

해발 678m의 덕산 가야산은 내포 지역의 중요한 중심 포인트이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함께 내포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가야산 서쪽’ 의 보령·결성·해미, ‘가야산 북쪽’ 의 태안·서산·면천·당진, ‘가야산 동쪽’ 의 홍주·덕산·예산·신창이 내포에 속하는 지역이라 하였다. 가야산이야말로 ‘내포’ 의 중심인 것이다. 예산 가야산이 이같은 상징성을 갖는 이유는 가야산이 백제 이래 내포 지역의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가야산의 이름은 『삼국사기』 에 ‘가야갑약(加耶岬岳)’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의 주요 산천에 대한 국가적 제사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대사, 중사, 소사의 삼사 제도이다. 이에 의하면 가야산(가야갑약)은 지리산, 태백산, 계룡산 등과 함께 ‘중사’ 에 포함되어 있다. 이 국가적 제사의 전통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아마 백제 이래의 전통인 것으로 추측된다.

내포의 중심 공간인 가야산에 많은 절들이 이후 들어서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야산을 대표하는 사원이 바로 가야사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 절터에서 ‘가라갑(加良岬)’ 이라는 절 이름이 적힌 기와가 출토된 바 있다. 이에 의하여 처음 절 이름은 ‘가야갑약(加耶岬岳)’ 이라는 이름대로, ‘가야갑사’ 또는 ‘가라갑사’ 라는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절 이름을 ‘가야갑사’ 라 한 것은 아마 공주 계룡산의 ‘계룡갑사(鷄龍岬寺)’ (현재의 甲寺)에 대응하여 지은 이름인 것 같다. 신라 이래의 전통을 갖는 가야사가 고려시대에 더욱 규모가 확대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12세기 무인정권시대 가야사가 민란의 거점이 되는 것은 이같은 가야사의 사세(寺勢)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야사는 특히 고려시대 내포지역의 최대 사찰이었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절의 세력이 기울고, 대원군에 의하여 폐사되는 운명이 되었으나 그 넓은 절터만은 지금도 남아 있다. 가야사 터를 내려다보는 언덕, 원래 가야사의 ‘금탑(金塔)’ 이 있었다는 자리에는 대원군이 만든 그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가 있다. 공주 마곡사는 5층석탑의 원 라마교의 양식을 본따 만든 금동보탑(풍마동)이 유명한데 최완수에 의하면 이러한 라마 양식의 금탑은 지금은 남연군의 묘지가 된 충청남도 덕산의 옛 가야사에도 있었다 한다. “왕과 공주가 홍왕사에 가서 금탑에 배례하였다” (『고려사』, 1285)는 기록, 혹은 고려 충렬왕 21년(1295) “국청사(國淸寺)의 금탑을 수보(修補)하였다” (『삼국유사』)는 것도 이러한 양식의 탑이 아니었나 한다.

가야산 줄기 덕숭산 중턱에 자리한 수덕사는 고려후기 1308년 건립된 대웅전 건물이 지금도 그 예술성을 자랑하고 있다. 백제시대 초창의 수덕사는 덕숭산에 소재하지만 역시 가야산의 줄기에 해당한다. 국보로 지정된 대웅전이 특히 유명하다. 건물의 외관도 아름답지만 1308년 창건이라는 건축 연대가 확인되어, 연대가 분명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기도 하다. 대웅전 내부에는 원래 창건 당시의 벽화가 남아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보수 공사 중에 소실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도 내부의 목조 가구에는 고려시대 화려한 그림의 흔적이 남아 있다. 수덕사는 백제와 고려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근대 불교사에 있어서도 큰 족적을 남긴 절이다. 경허선사(1849-1912)와 만공선사(1871-1946)는 수덕사를 중심으로 선종을 크게 진작시켜 한국 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는 주역을 담당하였다.

수덕사 입구에 있는 이용노선생사적지(도 기념물 제103호)는 이용노 선생과 예산과의 특별한 인연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구 수덕여관 건물은 고암이 1944년 구입하여 1959년 프랑스로 가기 전까지 거처한 ㄷ자형 초가이다. 집 앞에는 둘레 17m와 7.6m 크기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문자 추상의 작품이 새겨져 있다. 고암은 프랑스에서 문자추상이라는 동양과 서양, 추상과 구상,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독특한 화법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한국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알려진 것은, 그림 때문이 아니라 1968년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때문이었다. 무기 정역에서 2년 옥고를 치르고,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그가 남긴 문자추상의 암각화는 수덕사 입구의 명물이 되었으며, 선생의 사후인 1996년 ‘이응로 선생 사적지’ 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3. 대흥, 충절과 효의 고장

예산(대흥)은 660년 나당군에 의한 부여 함락 이후 663년까지 4년에 걸친 백제 부흥전쟁의 거점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백제시대 대흥 지역(임존성)이 내포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백제의 ‘서방성(西方城)’이 설치된 곳이었다. 백제는 전국을 동서남북중, 5방으로 나누었다. 일종의 광역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 가운데 도성의 서쪽 지역이 ‘서방’이고, 이 서방이야말로 대략 오늘날 내포지방에 해당한다. 이 서방의 치소는 바로 대흥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흥이 백제 시대 내포의 중심이 된 것은 초기 역사시대, 청동기시대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던 역사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1978년 대흥면 동서리에서 출토한 다량의 청동 유물은 초기 국가 형성기 대흥 지역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었다. 동서리에서 출토한 청동유물은 동검 9점, 검과형 동기 3점, 나팔형 동기 2점, 동경 5점분, 옥제품 126점 등이다. 유적의 시기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경으로 추정되었다. 하나의 무덤에서 출토한 이 화려한 유물의 존재는 국가 형성시기 대흥지역에 정치적으로 유력한 수장(首長)이 등장해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다. 이같은 역사 전통은 백제로 이어져 대흥은 백제 수도의 외곽에 위치한 거점, 서방성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660년 나당군에 의하여 사비 도성이 함락되자, 예산 대흥 지역은 백제를 회복하는 중심 거점으로 다시 부각된다. 임존성(봉수산성)이 그것이다.

660년 당군 13만, 신라군 5만의 18만 대군이 수륙 양면으로 백제를 공격, 부여와 공주를 차례로 함락하였다. 흑치상지가 임존산에 의거하여 굳게 지키지 열흘이 되지 않아 모인 자가 무려 3만이었다고 한다. “벌처럼 모이고 고슴도치처럼 일어나 산과 골짜기에 가득 찼다”는 것이다. 처음 임존성에는 부흥운동의 지휘부인 복신과 도침도 함께 하고 있었다. 부여를 함락한 당의 소정방군이 임존성을 공략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당군의 임존성 공략은 8월 26일(660년) 개시되어 대략 1주일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흑치상지가 지휘하는 부흥운동군의 적극적 대응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소정방은 의자왕과 여러 왕자를 포함하여 백성 1만 2천 807인을 포로로 하여 뱃길로 귀국하였다. 이는 부흥운동의 기세를 꺾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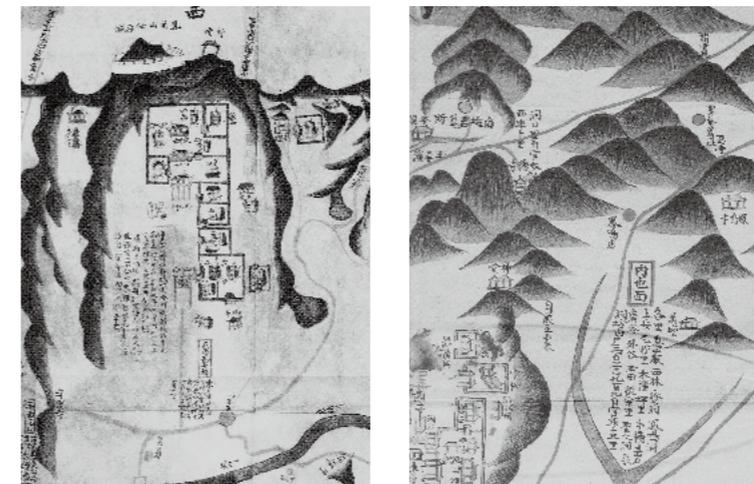
661년 9월 왜에 머물고 있던 왕자 풍이 귀국, 의자왕에 대신하여 백제의 왕통을 이었다. 그러나 주류성의 부흥군 내부에서는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고 다시 풍왕이 복신을 살해하는 등 내분이 야

기되었다. 복신과 풍왕의 갈등으로 백제군의 세력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거기에 더하여 임존성의 흑치상지는 당(부여 룡)에 항복하고 말았다. 아마 풍왕의 복신 살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663년 9월 8일 풍왕이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주류성(위치 불명)이 함락되었다. 이어 10월에 나당군은 부흥운동군의 최후 거점인 임존성 공격에 나섰다.

임존성은 흑치상지를 대신하여 지수신(遲受信)이 지휘하고 있었다. 문무왕의 신라군은 30일 간이나 임존성을 공격하였지만, 백제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성과 없이 회군하고 말았다. 그러나 11월에 임존성은 마침내 당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말았다. 당에 항복한 흑치상지의 공격에 의하여 성이 함락된 것이었다. 지수신이 고구려로 도망함으로써 백제 부흥운동은 4년 만에 종식되었다. 흑치상지(630-689)는 이후 당의 장군으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무고에 의하여 처형당하고 만다. 그는 키가 7척이 넘고 용감하고 지략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지만, 예산지역(덕산) 출신의 인물이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예당 저수지 부근에 있는 봉수산성은 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임존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둘레 2,426m, 성 안에서 20개 이상의 건물지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임존관(任存官)’이라 쓰인 기와도 출토되었다. 그러나 석축 성벽의 일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복원을 시도함으로써 원래의 모습이 사라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횃불을 올린 시발지였던 동시에 부흥운동의 최후를 장식한 현장이다. 663년 11월에 부흥운동은 종식되었지만, 백제 부흥에의 염원은 그 후에도 면면히 이어졌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충절의 정신은 내포 정신의 전통이 되었다. 충남 충절 정신의 기원은 바로 이 백제 부흥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도학 교수의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19세기 대흥지도와 덕산지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4. 예산, '고려 1100년'

918년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신라를 통합하고 후백제를 무너뜨려 936년 통일에의 대업을 이루었다. 고려의 통일은 실질적인 민족의 통합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사에서 그 의미가 각별한 점이 있다.

고려 초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제압하는 통일 전쟁에의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내포지역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현장으로 부각되었고 예산은 바로 그 중요한 교두보였다. 건국 이듬해인 919년(태조 2년) 8월, 오산현(烏山縣)을 예산현(禮山縣)으로 이름하고 애선(哀宣)과 홍유(洪儒)를 파견, 예산 지역 유민(流民) 5백 여 호를 다시 모아 살게 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것은 '예산'이라는 지명의 시작이기도 하다. 예산에 파견된 홍유는 고려 건국의 1등공신이다. 태조는 예산 회복을 내포지역 장악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건훤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태조 16년(934) 5월 6일(양력 6월 20일), 왕건은 예산진에 행차하였다. 왕건은 여기에서 대민교서를 발표한다. “너희들은 나의 훈계하는 말을 잘 준수하고 나의 상벌을 잘 청종하도록 하라. 죄 있는 자는 벌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며 공이 많고 죄가 작으면 상벌을 헤아려 행할 것이다.” 934년 5월, 고려의 후삼국 통일 2년을 앞둔 시점이다. 예산에서 발표한 것이지만 그것은 미래의 통일 고려왕국 전 국민에게 선언하는 태조의 대민책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태조의 대민 교서는 오랫동안 전란과 노역, 가혹한 세금으로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새 시대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앞의 임금(궁예)이 분쟁하는 무리를 다스려 나라의 터전을 열더니, 말년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사직을 뒤엎기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 위태로운 뒤를 이어 이 새 나라를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예산에서 발표한 태조 교서의 핵심은 자신이 “아들같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관리들이 과중한 세금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것이었다. “내가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들같이 여기고 있음을 잘 알아서 공경장상의 그대들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백성들에 대한 새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무엇보다 예산진에서 발표하였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이듬해 신라가 왕건에게 자진 복속하고, 다시 936년, 왕건은 건훤을 앞세워 신검군을 공격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의 대장정에 중지부를 찍었다.

660년 당 소정방의 군이 삽교천을 이용하여 임존성에 접근할 때 예산산성(무한성)은 그 뱃길의 관문이었다. 삽교천과 관련한 무한성의 이같은 특별한 방어적 기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예산은 군사적 거점 성격의 '예산진'으로 발전하였다. 고려 초 예산진의 치소가 바로 무한성(예산산성)이었고 따라서 태조 왕건이 행차한 '예산진'의 현장이 바로 예산산성이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왕건의 예산 행차로부터 500년 뒤, 조선의 태종이 방문하여 머물렀던 예산의 현장이 '무한성(예산산성)'이었다는 사실도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 한다. 조선 태종의 예산 방문은 태종 16년(1416) 2월의 일이었다. 예산 역사에서 차지하는 예산산성(무한성)의 특별한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옛 이름은 오산(烏山)이다. 이 '오산'이라는 지명은 신라시대 '고산', 그리고 고려초에 '예산'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라진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예산의 진산인 '금오산'은 바로 백제 때 예산의 원 이름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지명이다. 이 금오산 기슭에 자리한 절이 향천사이다.

향천사의 백제시대 창사설은 아직 확증될만한 자료가 없지만, 관련 자료의 출현을 기다려볼 만하다. 백제시대 창사가 아니었다더라도 통일신라기에는 아마 향천사가 성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향천사가 전성기를 맞았던 시기는 고려시대였다. 이점은 현재 경내에 남아 있던 고려석탑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바이지만, 다행히 이와 관련한 약간의 자료가 확인된다. 13세기 초 고려 무인정권시대에 문명(文名)을 떨쳤던 이규보의 관련 시(次韻胎首座寄林工部 并序)가 그것이다.

고려시대 향천사의 명성을 전하는 유물로 우선 향천사 석탑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향천사 석탑은 '향천사 9층석탑'이라 하여 도 문화재자료 제174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내에는 건축물(천불전), 석탑, 부도, 동종, 불상, 불화, 전적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조영되어 있거나 소장되어 있다. 동종만은 현재 수덕사의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향천사의 범종이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171호, 천불전은 도문화재자료 제173호, 9층탑은 제174호, 부도는 제179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추가 지정되어할 자료도 적지 않다.

《참고문헌》

노중국, 『백제 부흥운동사 연구』, 일조각, 2003
 지건길, 『예산 동서리석관묘 출토 청동일괄유물』 『백제연구』 9
 성부재, 『예산 대흥 임존성』, 예산문화원, 200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 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내포의 역사와 문화』, 2015
 윤용혁, 『충청 역사문화 연구』, 서경문화사, 2009
 윤용혁, 『충남, 내포의 역사와 바다』, 서경문화사, 2016
 고암미술연구소, 『고암 이응노, 삶과 예술』, 얼과알, 2000
 유홍준, 『완당평전』, 학고재, 2002
 가경고고학연구소, 『예산지역 백제산성 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17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예산 향천사의 역사와 문화유산』 (세미나 자료집), 2018

《예산 연표》

475 백제, 웅진으로 천도
 660 흑치상지, 예산 임존성에서 부흥운동 일으킴
 663 임존성, 나당군에 함락되어 백제 부흥운동 종식됨
 689 흑치상지, 당에서 투옥, 자결함
 918 고려 건국
 919 고려 태조, 오산성(오산현)을 예산현으로 고침
 925 유금필의 고려군 예산 임존성 점령, 후백제군 3천을 죽이거나 사로잡음
 934 태조 왕건의 예산(예산산성) 행차, 대민교서 발표
 1176 가야산 손청의 난, 예산현 함락 감무 살해
 1236 몽골군의 침입, 임존성 전투
 1308 수덕사 대웅전 건립
 1370 '내포' 지명의 등장

1377 왜구, 덕산에 침입
 1392 조선 건국
 1405 덕풍현과 이산현을 합쳐 덕산현으로 고침
 1416 태종, 예산 방문하여 무한성(예산산성)에서 1박
 1420 대흥 이성만이 세종에게 효자로 표창받음
 1497 대흥 이성만 형제 우애비 건립
 1758 화순옹주(영조의 2녀), 남편 김한신(추사의 증조부)을 따라 죽음
 1783 정조가 고모 화순옹주의 열녀문을 예산에 세움
 1784 이존창, 천주교 여서울공동체
 1786 추사 김정희 출생
 1802 이존창, 공주에서 순교
 1809 추사가 연경에서 씨앗을 가져와 백송을 심음
 1845 남연군 묘, 가야산으로 이장
 1856 추사, 세상을 뜬
 1865 대원군, 예산 보덕사 건립
 1868 오페르트, 덕산 남연군묘 도굴 시도
 1894 동학농민군 신례원전투
 1904 고암 이응로 출생
 1907 이남규 선생 순절
 1908 윤봉길 의사 출생
 1910 공주 농업학교 개교(예산농업학교의 전신)
 1912 수덕사 경허선사 입적
 1913 예산 호서은행 설립
 1924 예산, 덕산, 대흥현을 합쳐 예산군으로 함
 1917 호서은행 광천지점 설립, 덕산온천 개장
 1918 호서은행 천안, 안성지점 설치
 1920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부 창립
 1921 독립운동가 김한중 처형
 1922 공립농업학교를 공주에서 예산으로 이전, 예산에 철도 부설(장항선 천안-예산 구간 개통)
 1923 고덕면 대천리에 사과농장

충남학 특강

인류의 역사와 형벌의 변천사

李 璟 在 (忠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教授, 法學博士)

- 1924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 동맹휴학
- 1929 예당저수지 조성공사 착공
- 1930 호서은행, 한일은행과 통폐합
- 1936 충남제사공장 완공
- 1932 윤봉길 의사,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 투척, 체포되어 일본에서 처형됨,
예산농업학교 '적색독서회' 사건
- 1933 김일엽, 수덕사에 입산 만공의 제자가 됨
- 1934 여류 화가 나혜석, 수덕여관에 머무
- 1937 수덕사 대응전 수리
- 1940 예산군 예산면이 예산읍으로 승격
- 1941 경남과물협동조합 결성
- 1945 광복
- 1951 조영남이 황해도에서 삼교로 피란 내려옴
- 1964 예당저수지 완공
- 1973 삼교읍 승격
- 1978 예산 동서리 청동기 유물 출토
- 1979 삼교천 방조제 완공
- 1983 사면석불 발견
- 1992 예산농업전문대학, 공주대학교와 통합(산업과학대학)
- 2005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 시작
- 2009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 2006 충남도청 부지, 예산-홍성지역으로 확정
- 2013 충남도청 이전, 내포도청시대 개막
- 2019 '예산 지명 1100년'

I. 머리말

* 秋史 김정희 선생: 유배형(圍籬安置)

II. 현행 형법상 형벌제도

[Click!] 현행법상 형사제재

형벌	보안처분	범칙금납부통고처분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치료감호	
(자격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보호관찰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사회봉사, 수강명령	

1. 刑罰(형41):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① 의의: 과거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
- ② 형벌의 구분: 형집행에 의해 박탈되는 法益의 유형에 따른 구분
 - ㉠ 생명형: 死刑
 - ㉡ 자유형: 懲役, 禁錮, 拘留
 - ㉢ 재산형: 罰金, 科料, 沒收
 - ㉣ 명예형(자격형): 資格喪失, 資格停止

③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 ㉠ 死刑
 - ㉡ 受刑者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絞首刑(66)과 銃殺刑(군형법 3).
 - ㉢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大判, 憲裁) 대립
- ㉣ 懲役
 -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定役(강제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 ㉥ 유기징역(1월 이상 30년 이하), 무기징역(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
- ㉦ 禁錮
 - ㉧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나 定役に 복무하지 않음. 단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노역에 유치(형집행법 67).
 - ㉨ 징역과 같이 유기(1월이상 30년이하, 가중시 50년까지)와 무기로 구분.
- ㉩ 拘留
 -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구치소 내에 구치하는 형벌.
 - ㉫ 수형자는 징역을 하지 않지만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가능.
- ㉬ 罰金
 -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강제하는 형벌로서 50,000원 이상.
 - ㉮ 미납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換刑處分).
- ㉯ 科料
 - ㉺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재산형.
 - ㉻ 미납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노역장 유치(형 69).
- ㉼ 沒收(및 追徵)
 - ㉽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48).
 - ㉾ 추징은 몰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몰수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
- ㊀ 資格喪失
 - ㊁ 범죄자의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형벌.
 - ㊂ 상실되는 자격은 i) 공무원이 되는 자격, ii)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iii)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iv)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財産管財人이 되는 자격.
- ㊃ 資格停止

㊄ 일정한 기간동안(1-15년) 일정한 자격의 전부/일부가 정지되는 형벌.

2. 保安處分

- ① 의의: 범죄자의 일정한 특성(심신상실, 약물중독 등)을 이유로 형벌의 부과가 의미가 없는 경우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가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 ② 종류: 보호관찰,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신상공개, 전자감독 등

3. 범칙금납부통고처분

- ① 의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경미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처분권을 부여하면서 당사자가 일정한 금융기관에 犯則金を 납부토록 하여 형사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 ② 장점: 범칙행위자에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Ⅲ. 전통형법상 형벌제도

- * 고조선의 八條禁法, 삼국시대의 律令, 고려의 唐律, 조선시대의 경국대전(1649 - 大明律 차용) 등
- * 五刑制度: 笞杖徒流死.

Ⅵ. 刑法의 歷史와 刑法學派의 형성

I. 刑罰制度의 變遷에 따른 形법의 역사

- 고대(復讐時代), 중세(威嚇時代), 근대(博愛時代), 현대(科學時代)

1. 古代 - 復讐時代

- ① 형벌을 응보적 수단으로 보아 復讐 또는 報復이라고 봄(私刑罰時代).
- ② 복수는 同害報復(lex talionis), 도피처제도(asylum), 贖罪金(일종의 배상금)의 납부, 집단 또는 부족 간의 복수나 보복(vendetta), 개인 간의 결투 등 포함.

2. 中世 - 威嚇時代(형벌의 국가화)

- ① 국가형벌권사상이 도입되어 엄격하고 잔인한 형벌이 부과됨(중국의 唐律·大明律, 고려·조선의 형법, 영국의 헨리 8세·엘리자베스 여왕)
- ② 형법은 성문법전으로 정비되기 시작(동양의 경우 五刑制度의 확립)

3. 近代 - 博愛時代(형벌의 法律化, 人道化, 博愛主義): 형벌의 법률화시대

- ① 17-8C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주의, 인도주의, 법치주의에 근거한 형벌 도입
- ② Beccaria의 사형과 고문의 폐지 주장, Feuerbach의 罪刑法定主義의 도입 등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과거의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은 현저히 완화되고 人道化됨.

4. 現代 - 科學時代(형벌의 과학화 및 개별화)

- ① 19세기의 자연과학의 발달과 산업혁명은 소년범과 상습범의 증가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연구를 촉진시켜 형벌 역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함(Lombroso, Ferri, Garofalo, Liszt 등 근대학파).
- ② 형벌의 개별화(연좌제 폐지), 형벌의 과학화 등.

㉞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형벌은 범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주창자

㉟ Cesare Beccaria: 『범죄와 형벌』(1764)에서 계몽주의사상과 공리주의사상에 입각한 죄형법정주의, 성문법주의,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형사절차의 개선, 사형과 고문의 폐지, 교육의 중요성 강조.

㊱ Jeremy Bentham: 영국의 법학자로서 공리주의 주장, 파놉티콘 교도소 주창

2. 近代學派(新派, 實證主義學派, the Positive School)

- ① 19세기 이후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범죄의 격증, 소년범 증가, 상습범, 누범의 증가로 자연과학에 근거한 과학적 형법이론이 등장.
- ② 決定論: 범죄인은 보통인과는 달리 유전적 또는 후천적으로 육체와 정신이 비정상적이고, 자유의사는 주관적 환상에 불과하며,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음.
- ③ 이태리학과(Lombroso, Ferri, Garofalo): 生來的 犯罪人, 범죄의 개인적/자연적/사회적 원인 주장

V. 刑法學派의 發展

1. 古典學派(舊派, the Classical School)

- ① 내용
 - ㉟ 18세기 후반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형법학.
 - ㊱ 啓蒙主義思想, 社會契約說, 功利主義思想,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사상 바탕
- ② 특징
 - ㉟ 自由意思論(非決定論), 道義的 責任論에 기반
 - ㊱ 응보형주의: 형벌은 해악과 고통을 내용으로 하며, 그 본질은 응보이다.

충남학 특강

충남의 역사문화 바로보기

이 해 준 (공주대 명예교수)¹⁾

충남의 자연환경과 ‘정신’, ‘문화’

유구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중에서 과연 충청도의 그것은 어떤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이고, 현대사회 속에서 그러한 전통문화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강조한 충청도 문화의 특징은 대개 ①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온화하고 원만한 품성, ② 백제문화로 대표되는 오랜 문화적 전통성(예술성), ③ 선비정신·양반문화로 대표되는 예의와 정신문화라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충청도 하면 흔히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한다. 충청도는 금강이 젓줄처럼 내륙 사이를 가로지르며, 알맞게 발달한 산지와 그 사이사이에 펼쳐진 평야들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조건을 이루어 놓았다. 그런가하면 큰 강이나 큰 산이 없어 홍수나 기근, 자연재해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었다. 그뿐이 아니다. 서해와 연결된 해안지대는 삶에 또 다른 풍요를 가져다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먹을 것이 많고 살기 좋은 땅. 기후가 좋고, 넓은 평야와 이를 살찌우는 강·하천의 발달, 넓은 바다와 개펄의 해산자원은 이 지방인들의 삶에 여유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지금도 충청도 사람 하면 우선은 ‘순하고 온화한 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로 분류, 통칭하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충청도 사람들의 인성은 바로 풍요롭고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물산을 배경으로 이 지역에서는 선사-고대문화가 고도로 발

달하였다. 주로 금강유역을 기반으로 발달했던 이들 선사-고대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은 고도로 발달했던 백제의 문화가 바로 그 토양 위에서 생성되었던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금강’과 ‘서해’ 문화 - 백제문화와 내포문화

금강문화와 내포문화

- 금강과 서해안 / 금강문화와 내포문화
(“서해와 금강이 만나 이룬 문화”)
- 강운(수운, 셋강, 포구)과 금강문화
- 바닷길(조운, 해운, 포구 갯벌)과 내포문화
- 홍주권과 공주권(지리, 정치, 문화, 역사)
- 다양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포의 문화유산들

금강의 선사·마한문화

예컨대 금강문화는 백제문화로 상징되면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문화예술과 지성사, 행정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왔다. 우리는 대개 백제문화만을 그 상징으로 자랑하지만, 금강유역을 기반으로 발달했던 이들 선사-고대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은 석장리 구석기문화를 비롯하여 괴정동 청동기문화, 송국리 주거지 등과 같이 한국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저명 유적지들이 있다. 그 기반 위에서 고도로 발달했던 백제의 문화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백제문화의 자연과의 조화

백제의 문화는 그 토기처럼 온화한 인상을 준다고 흔히 이야기한다. 모두가 섬세한 기교로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정리되고 다듬어졌다는 인상도 강하다. 흔히 물씬 풍기는 토기들, 화려하지 않으면서 격조 있는 조화를 보여주는 기와무늬들, 근엄함보다는 고졸한 불상의 미소, 목조건물을 연상케 하는 백제 탑의 기법과 절제된 단순미, 그런가하면 무령왕릉 부장유물과 부여에서 출토된 향로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문화예술 수준도 모두 이러한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생성된 문화였다.

1) 현재 공주대 명예교수.
목포대학교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한국서원학회 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 백제 토기의 촌티 물씬 풍기는 온화한 모습
- 화려하지 아니하면서 격조와 조화를 보이는 연꽃무늬 기와들
- 산경문전의 자연 조화, 무령왕릉의 등감
- 근엄보다는 고졸한 불상의 미소,
- 목조건물을 연상하게 하는 백제 탑의 기법과 절제된 단순미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문화(儉而不陋 華而不侈)

백제문화는 수준 높은 국제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에 대한 건축, 조각 등 각종 선진기술의 전수, 그리고 신학문과 종교의 전수가 삼국 중에서도 특히 백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신라의 유명한 황룡사 9층탑도 아버지라고 하는 백제인 기술자의 전문적 지도 때문에 건립이 가능할 정도였다.

백제의 문화예술 수준은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많은 금속공예품과 그 화려함을 통해 백제의 문화예술 수준은 선진과 고도로 대변된다. 통일 이후 신라의 예술에 기여한 백제 장인의 숨결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삼국 중에서도 유독 백제인들만은 금석문이나 공예품에 장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점도 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그들의 지위를 염두에 두게 하는 대목이다.

개방, 선진의 글로벌 '백제문화'

- 백제문화와 '바다, 강' ; 개방성과 다양성
- 삼국 중 가장 국제교류 활발 ; 해양문화
- 중국 남조와의 긴밀한 교류, 일본에의 문화전파
- 외래문화 수용의 적극성(?) = 문화적 자신감에 토대한 유연함(?)
⇒ 2015년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으로 등재
- 백제의 문화는 삼국 중 특히 개방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신라나 고구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 백제는 바다와 강이라는 열린 창구를 통하여 문화의 수용과 교류, 전파를 이룬 글로벌 국가이었다. 백제는 중국 남조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꽃 피울 수 있었고, 이렇게 발달한 백제문화는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
- 2015년 백제역사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사실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백제화

(百濟化)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하였다는 점이였다.

신문화의 관문 '내포' '내포문화'



내포(內浦)는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아산 등의 지역으로 바다를 끼고 있어 일찍부터 해상 교통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많은 포구가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서 해운이 편리하여 일찍부터 조운로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상 내포는 외국의 선진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었으며 백제불교의 역사도 내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바닷길」은 일찍부터 내포만의 독특한 내포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내포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으며 많은 포구가 발달하였고 서해로 향해 열린 문화전파 루트의 관문적 성격이 강하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서울, 그리고 호남지역을 사이에 둔 삼각지대로 개방적인 문화교류를 해왔던 것이다. 백제시대의 중국과 교섭이라든가, 서산마애불로 상징되는 내포 불교의 전통과 라말 선종의 유입, 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인맥,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이라든가 천주교의 전파 등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 다양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포의 문화유산들

- 대중국 해로와 당진, 한나루
- 서산마애불로 상징되는 내포 초기불교
- 부장리 백제고분
- 라말 선종의 유입과 성주사지, 왕건과 홍주
- 조선후기 실학과 천주교의 전파
- 굴포운하, 충청수영성과 수군만호진들
- 한말의병과 항일독립운동

또한 내포의 지성사적 전통은 금강유역의 유교문화와 그 경향이 약간 다르다. 내포문화는 시대 변화에 매우 빠르게 대처한 선진, 다양성을 보인다. 백제시대의 대중국교류나, 라말려초의 내포 불교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의 발전, 천주교의 이른 전파와 교세확장, 한말 홍주의 병으로 대표되는 의병활동, 그런가하면 동학농민군의 활동도 만만치 않은 곳이 내포지역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한말 홍주의병을 주도한 김복한, 이설, 임한주를 비롯하여 개화·민족운동의 대표적 인물들이 내포출신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윤봉길, 김좌진, 한용운, 이상재, 이남규 등 등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내포 천주교와 순교사도 이 지역문화의 큰 특징으로 부각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의 고향은 충남 당진이다. 그리고 충남의 서해안 지역에는 서산의 해미읍성, 보령의 갈매못, 당진 솔피 성지, 예산 신리 공소와 이존창 생가 터 등등 천주교 순교지가 곳곳에 있다. 서산을 비롯한 태안, 홍성, 예산 등 내포지역이 우리나라의 초기 천주교인들을 길러낸 못자리판으로 이후 경기, 영남, 호남으로 옮겨 심었던 것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다. 또 성향을 약간 달리하기는 하지만 해안과 도서지역에 남아 전하는 갯벌 민속문화의 존재라든가, 저산팔음을 휘둘며 상권을 장악했고 때로는 서울을 넘나들면서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던 보부상단의 거점도 이곳이었다.

양반, 선비문화의 본 고장 - 호서유학과 지성사적 전통-

또 하나 충청도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양반(兩班)”이다. 충청도에서는 불사이군의 충절을 실천한 많은 사림과, 국가가 혼란에 처했을 때 멸사봉공의 선비정신을 발휘하며 조선조 예론(禮論)의 메카로 불려지듯 확고한 지식인 문화의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조선조 문과급제자의 52%가 충청도 인물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선비들의 밀집지이기도 하였고, 이증환은 이러한 사정을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에서 “산천이 평평하고 예쁘며, 서울이 가까운 위치여서 사대부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고려말 조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던 시기에 불사이군의 충절을 실천했던 중요 인물들의 태생지와 활동근거지가 충청도였고, 사림정치가 정착되기 이전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선진적인 성리학을 부식하기에 노력했던 인물들도 많았던 때문에 증봉 조현으로 대표되듯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릴 수 있는 충절 정신의 대표적 인물들이 대를 이어 배출되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 중·후기의 예

학을 주도했던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같은 당대 석학들이 활동한 무대도 바로 이곳 충청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날 일부의 문화비평가들은 이러한 양반문화, 선비문화를 권위나 입신양명, 나아가 당파세력, 봉건적 착취세력 등으로 평가절하 하려는 경향도 보게된다. 그러나 만약 양반이나 선비의 정신이 그런 것이었다면 충절의 행적에서 보듯 과연 목숨을 내어 던지며 환란을 자초한다든지, 도끼를 등에 지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행적은 결코 보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천가이자 현실개혁의 이론가들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특권세력의 사회경제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향촌의 자율성을 추구하던 양심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 수백 년은 양반중심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산림들이 가졌던 선비 정신은 결코 보수적·관념적이라고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개혁적·혁신적이고 강경하여 그들의 주장이 보수진영의 강한 견제를 받을 정도였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선조의 충청도 선비정신에서 오늘날 올바르게 본받고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부족하고 퇴색된 이러한 현실 비판과 개혁정신을 우선적으로 되찾는 일일 것이다.

호서사람이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인조반정 이후의 일이다.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이 ‘崇用山林’의 기치 아래 산림을 등용하게 되자 호서사람이 정계에서 큰 활약을 한 계기가 되었다. “山林”은 ‘山谷林下에 은거한 학덕을 겸비한 학자’를 일컫는 말로 산림의 등용은 학과 정파에 구애되지 않고 사람의 학문적 중심인물들을 중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성리학적인 봉당정치의 상호비판체제를 구현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인조-효종의 산림등용으로 沙溪의 학맥에서 모두 14명의 산림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거의 호서지역 출신이었다. 산림이 중용된 인조 1년(1623)에서 숙종 20년(1694)까지 징소된 산림 35명을 지역별로 보면 충청도 16명, 경상도 6명, 전라·경기 각 3명으로 호서지역이 절대적인 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율곡의嫡傳인 金長生(1548~1631)이 출현하고 金長生·金集(1574~1656) 부자의 학맥을 계승한 宋時烈(1607~1689), 宋浚吉(1606~1672), 李惟泰(1607~1684), 俞榮(1607~1664), 尹宣學(1610~1669) 등 호서산림 인사들이 특색 있는 학문 활동을 벌이면서 명실상부한 호서학맥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성혼-윤황-윤선거-윤중으로 이어지는 우계학파의 학풍도 있고, 율곡 남인계열의 權得己(1570~1622) - 權認(1604~1672) - 權以鎭(1668~1734)이

道山學風도 있었으며, 윤 휴(白湖, 1617~1680)도 경학·성리학·예학 등이 공존하여 황의동이 지적하듯 호서유학은 영남유학에 비해 개방적이며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17세기를 주도한 송시열 등 노론세력은 조선이 中華의 嫡統을 계승한 ‘중화문화의 담당자’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중화문화의 실체로서 예문화의 확립은 필수적 조건이었다. 17세기 한국사상사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북벌, 대내적으로는 예치가 당대의 최대 화두였다. 그리고 바로 그 “國家再造”의 과정을 주도하고 그 현실타개책을 가장 정면에서 제시한 인물들이 바로 “호서산림”들이었던 것이다. 禮治란 왕도정치 실현의 구체적 내용으로 禮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형태였다.

그리고 호서유학사에서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우암 송시열의 적전이었던 權尙夏의 문하에서 이른바 ‘人物性同異論辯’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즉 人物性異論을 주장한 南塘 韓元震(1682-1751)과 同論을 주장한 巍巖 李柬(1677-1727)이 모두 호서지역이 배출한 유학자였던 것이다.

오늘 날 일부의 문화비평가들은 이러한 양반문화, 선비문화를 권위나 입신양명, 나아가 당파세력, 봉건적 착취세력 등으로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약 양반이나 선비의 정신이 그런 것이었다면 충절의 행적에서 보듯 과연 목숨을 내어 던지며 환란을 자초한다든지, 도끼를 등에 지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행적은 결코 보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천가이자 현실개혁의 이론가들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특권세력의 사회경제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향촌의 자율성을 추구하던 양심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 수백 년은 양반중심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선비 정신은 결코 보수적, 관념적이라고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개혁적, 혁신적이고 강경하여 그들의 주장이 보수진영의 강한 견제를 받을 정도였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선조의 충청도 선비정신에서 오늘날 올바르게 본받고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리에게 부족하고 퇴색된 이러한 현실 비판과 개혁정신을, 그리고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되찾는 일일 것이다.

‘문화와 정신의 신세기’, 그리고 충청문화

‘충남학’은 충남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되살리고, 그것을 토대로 21세기 충남의 활기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와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에는 어김없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정신이 있었고, 그 주체들이 있었다. 바야흐로 경쟁화, 지방화시대를 맞은 충청남도는 수많은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타 지역과 구별되고,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기 위해 새로운 21세기를 힘차게 이끌어갈 ‘新 思考’와 ‘그 주역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신과 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없다. 특히 과거의 전통문화를 현대에 되살리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또 스스로 느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또 실용적으로 재활용하려고 하느냐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들이 아닌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술과 함께 걸기, 제주와 함께 걸기

문화예술교육사 최예은

제주, 이름만 들어도 드넓게 펼쳐진 초원과 돌하르방,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 생각나는 곳.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4차 워크숍이 10월의 멋진 제주에서 열렸다. 그런 멋진 제주에서 가을의 예술을 만나고 돌아왔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첫 일정은 본태(本態) 박물관에서 시작되었다. 본태 박물관은 ‘本態, 본래의 형태’의 뜻과 같이 인류 본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되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1995)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지어졌으며, 안도 다다오는 ‘제주도 대지에 순응하는 전통과 현대’를 고민하여 박물관 설계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건물을 보기 전엔 그의 건축물 트레이드마크인 노출 콘크리트와 자연이 잘 어울릴까 생각했었지만, 건물을 보는 순간 재료의 단단함과 각진 모양새 때문에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와 고요하고 따뜻한 자연의 경관이 어우러져 오히려 자연에 집중할 수 있으며, 건축물 또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 박물관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본태 박물관은 5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관에서는 한국 전통공예품, 2관에서는 현대미술품 및 산방산과 모슬봉, 단산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3관에서는 강박증과 환영이라는 주제로 일관된 개념을 다양한 방식과 매체로 풀어어나가는 일본의 대표 작가,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의 상설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4관은 우리나라의 전통 상례를 접할 수 있는 <피안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꽃상여와 꼭두의 미학>이 전시되고 있었다. 마지막 5관은 기획 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가 이뤄지고 있었다.

나는 다양한 전시들 속에서 상설전시인 제3관에서 펼쳐졌던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무한 거울방-영혼의 반짝임, 2008>을 잊을 수 없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거울과 수많은 LED 전구, 판넬과 물로 이뤄진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색채의 100개의 전구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니,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작은방에서 작은 전구가 반복적이지만 동일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고 황홀했다. 바닥에 얇은 물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거울 때문에 깊이를 알 수 없어 무서웠다. 또

위에서 비추는 전구 빛, 수면에 비친 빛으로 정말 무한한 빛과 거울로 이뤄진 공간에 우주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거울에 내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빛과 수면, 공간에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 방을 나서면서 예술 작품에 압도되어 청중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예술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다.



본태(本態)박물관

둘째 날엔 예술 공간 이아(貳衙), 국립 제주 박물관에 방문하였다. 예술 공간 이아(貳衙)는 판관이 머무는 관아의 이름이었다고 한다. 그 후 일제의 식민지 통치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자혜의원으로 설립되었다가 해방 이후엔 도립병원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폐원한 병원을 예술 공간으로 되살린 것이다.

예술 공간 이아는 예술인 전시실, 문화예술교육 공간, 문화예술 창의 연구 공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분리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제주도민 및 예술인들에게 대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년부터 성인까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예술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예술공간 이아(貳衙)

방문한 때에는 제주조각가협회 30주년 아카이브 전시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제주도민의 활발한

대관 전시와 시설 이용, 체계적인 입주 작가의 창작지원, 인재 발굴 등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이름 그대로 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예술 공간 이아. 그곳에서 예술 공간으로써의 역할과 의미, 공간 분할과 쓰임에 대해 배우고, 나 스스로 진정한 예술 공간이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 제주 박물관에서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문화재를 볼 수 있었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전시 공간으로 전시, 영상 상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박물관의 볼거리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제주 국립 박물관에서는 충남 및 제주 교육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충남 및 제주 문화예술교육사가 조별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몸을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및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토론했고, 또한 조별 문화예술교육 기획 발표를 통해 충남 문화예술 교육사와 제주 문화예술교육사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국립 제주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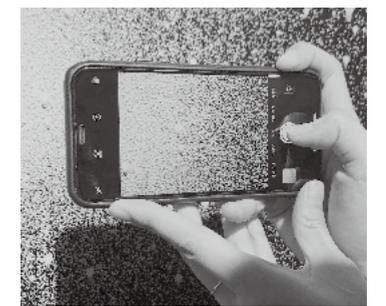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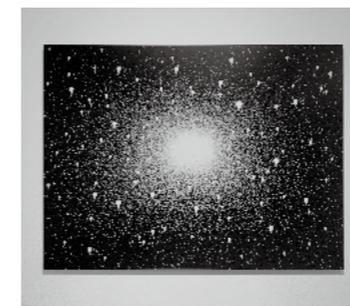
마지막 날, 제주 현대미술관을 마지막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제주 현대미술관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뽑히기도 했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개관했다. 2007년 개관하여 개관한지 12년 정도 흘렀지만 노후된 곳 없이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자연의 고즈넉함과 여유로움,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제주 현대미술관은 본관과 분관, 김홍수 아틀리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에서는 김홍수 작가와 2-3개월 주기로 교체되는 기획 전시, 분관에서는 박광진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시뿐 아니라 곳곳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조형 작품을 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었다. 공원과 숲길 곳곳에 현대조각가 9명이 제작한 조형 작품들이 아름다운 풍경에 녹아있어 어느 곳 하나 그저 스치는 길이 없을 정도로 눈이 즐거운 공간이었다.

본관 기획전시는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리스 조던은 사진과 개념미술, 영화와 비디오아트 등 장르를 넘나들며 현대 세계의 주요 담론과 이슈의 현장을 보여주는 작가로서, 다양한 작품들 중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 시리즈는 ‘숫자를 따라서 I ,II (Running the Numbers I ,II)였다.

‘숫자를 따라서’ 시리즈는 간과하기 쉬운 환경 관련 통계 숫자들을 시각예술로 환기시킴으로서 멀리서 보면 그저 하나의 사진이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로소 작품의 제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공룡의 귀환 Return of the Dinosaurs>은 240,000개의 비닐봉지로 표현, 여기서 240,00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에서 10초마다 소비되는 비닐 봉지의 배설 숫자이다. 또한 <전구 Light Bulbs>는 32만 개의 전구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비효율적 주거용 전기 사용(비효율적 배선, 컴퓨터 절전모드 등)으로 매분마다 미국에서 낭비되는 전기의 킬로와트시를 표현한 것이다.

크리스 조던은 현대 문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그의 작품으로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사유하게 한다. 때로는 아주 친숙하고 흥미롭게, 하지만 감각의 깊은 곳을 깨우며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한다. 이와 같이 자칫하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 관련 통계 수치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자연 파괴적인 인류의 행동을 지적하고, 상기시키는 크리스 조던의 작품들을 보며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작품이 그저 ‘예술’의 역할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 풍자의 역할까지 이끌어내야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생각했다. 또한 그 작품을 보는 나 또한 예술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자세에 대한 폭을 넓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주 국립 현대미술관

10월에 멋진 제주에서 함께 나아갈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예술 경험을 쌓는다는 것,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눈과 귀가 즐거웠던 제주에서의 2박 3일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기행문] 해외문화기반시설 답사기

예산문화원 주임 장화수

일탈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시계태엽처럼 늘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걸 보며 호기심 많은 눈으로 관찰하고 배우고 느끼고, 호기심이 많고 배움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번 해외 연수는 행운이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일본 연수 일정은 3박 4일로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을 방문한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답사 일정을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갈등이 서로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들었고, 뉴스, 포털사이트, SNS에는 연일 “No Japan”, “일본 불매운동”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일본 여행까지 취소하는 뉴스를 접하자 슬슬 걱정이 앞섰다. 혹 이번 해외 연수가 문화원에 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였다. 물론 좋지 않은 시기여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선진문화시설을 보고 배우는 자세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행감상문으로 적고자 한다.

간사이(關西) 지방은 서일본의 핵심 광역권이다. 남쪽은 기이반도에서 북쪽은 와카사만에 이르는, 주고쿠(中國) 지방과 주부(中部) 지방 사이의 지방을 말한다. 교토부, 오사카부의 2부와 시가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미에현의 5현을 포함한다. 인구는 약 2,200만여 명에 달하며, 사실상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 다음으로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인구, 교통, 문화면에서 손에 꼽는 광역권을 형성한다. 우리의 첫 일정은 오사카 옆에 효고현에 있는 고베라는 도시였다. 고베는 예로부터 준마이(純米)라는 술이 유명하다. 준마이란 술을 빚을 때 쌀과 쌀누룩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 이 준마이라는 전통술을 전통방식 그대로 제조하고 있는 기쿠마사무네주조 기념관(菊正宗 酒造紀念館)이다.



〈 기쿠마사무네주조 기념관(菊正宗 酒造紀念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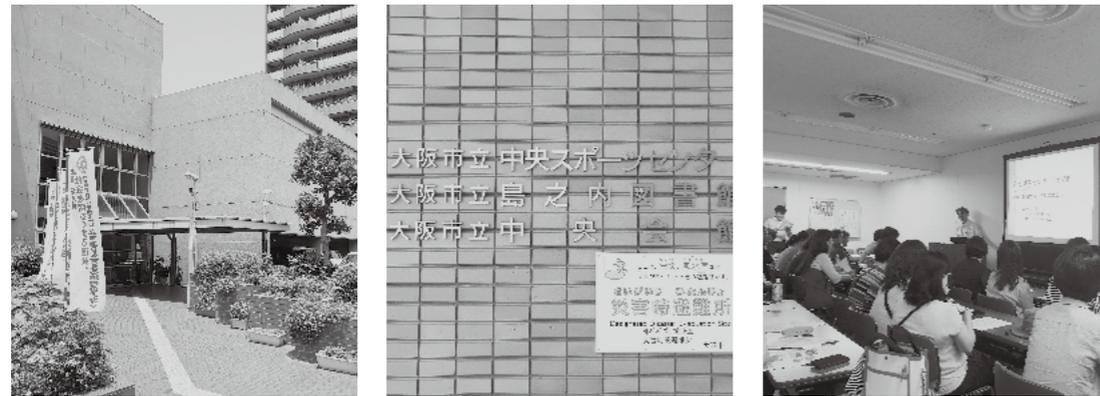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키쿠(菊)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로 여기서 제조한 술은 봄에 제조하여 가을에 마시기 좋은 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곳은 과거 고베 대지진 때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고 다행히 5년 만에 재건하여 지금까지 전통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가이드에 설명을 들으며 건물에 도착하니 건물 입구에서부터 일본 전통 술병들이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 방에 술을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영상을 미리 준비해놓았다.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야마다니시미(쌀)에 누룩(발효제)을 넣고 누룩방에서 하루를 숙성시킨 다음 누룩균에 새로운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섞고 하루를 더 숙성한다. 그다음 모토뵈기로 꼭꼭 눌러주고 다시 숙성시키면 1g에 2억 효모균이 살아있는 사케가 탄생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양조장이 제조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유산을 넣는 소쿠쵸모토 방식을 이용하지만 여기는 300면이 넘도록 전통방식인 기모토 주조법을 고수한다하였다. 영상을 보고 나와 직원 안내를 받아 기념관에 가보면 과거 사용하였던 기구들이 전시 되어 있다. 영상에서 봤던 가마, 누룩방, 효모실, 발효실, 술 짜는 곳까지 실제로 볼 수 있었다.



〈 기쿠마사무네주조 기념관 전시실 〉

영상을 보고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이런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달았다.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걸으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자신들만의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유지해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통문화가 많지만, 뉴스를 통해 매년 계승자가 없어 명맥을 잃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몇 백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가는 전통문화를 보니 부러움마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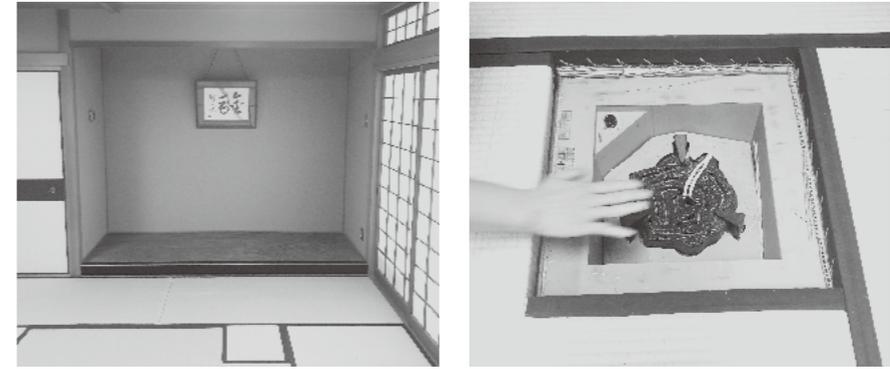
오사카로 돌아오고 다음 날 오사카시에 있는 나니와 구민센터와 오사카 시립 중앙회관을 방문하였다. 일본은 행정 기관을 대신하여 민간 기업이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정 관리 대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민센터와 중앙회관을 관리하는 곳이 오사카시 커뮤니티 협회이다.



〈 나니와 구민센터와 오사카 시립 중앙회관 〉

회의실에 앉아 협회 직원에 설명을 들으니 이 협회는 1960년대 이후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 시민문화 진흥, 지역 복지의 향상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사카시에서 1975년부터 협회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 이르러 오사카 24개 구(區)마다 협회가 설립되자 이를 하나로 합병하여 오사카시 커뮤니티 협회가 발족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9년 현재 1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개 구에서 구민 축제 등의 커뮤니티 육성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설 운영에 있어 주로 하는 일은 우리 문화원과 대동소이하다. 평생 학습 사업, 문화제 음악 축제, 회의실 대관 등이 그 예이다. 다른 점은 건물들이 커서 회의실이 많았고, 방마다 다른 용도로 돼 있었다. 그중 화실(和室)이라는 일본식 방이 눈에 띄었는데 회의실마저 전통문화방식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에 우리 문화원 역시 본받아

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었다.



〈 일본 전통 방을 재연 〉

협회에서는 시설관리 외에도 각 구에 축제를 주관하기도 하는데 기억에 남은 건 축제는 우리와 비슷하게 개최하지만, 우리와 다른 건 지원해주는 행정처와 참여하는 시민들의 태도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자신들이 축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생각한다면, 여기 시민들은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이 축제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행정처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축제에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되어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원을 줄이거나 예산 편성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기에 과정이 좋았다면 꾸준히 지원을 해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준다고 한다.

시설을 방문하여 작은 회의실에서 기관 설명을 들었을 때마다 각 책상 위에 협회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한글로 번역된 회의 자료였다. 이 자료 준비에 대해 협회 사람에게 물으니 한국에서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번역기를 통해서 일일이 번역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그저 번역기만 돌려서 대충 적은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마지막으로 그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문맥이 맞는지까지 확인하였다고 한다. 어찌 보면 자신들과 별로 상관없고 시설 운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열심히 회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답사 마지막 날 버스를 타고 방문한 곳은 교토에 있는 후시미 이키이키 시민활동센터이다. 이 시설은 지역 내에서의 “배움” 과 “느낌” 을 키워드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시민 활동을 통해서 지역이 계속 변화하기 위한 사이클을 낚는 것을 목표로 한다. NPO 단체와 협력하여 후시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분류해서 이 문제점들이 나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연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중에서 여기는 최전선, 즉 시민들에게서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그 것에 대해서 듣고 이를 분류하여 이 부분이 사회에 어떤 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지를 분석하는 곳이라고 한다.

지역을 다 봤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정에서 내가 느낀 점이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의 차이였다. 가이드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관한 예피소드 또한 듣고 나서 보니 그냥 지나쳤을 법한 것도 보게 되고, 호기심에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보고, 모르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답사를 온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해외 연수로 보고 느낀 것이 나에게 있어서 견문을 넓히는 배움의 비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문화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후시미 이키이키 시민활동센터 〉

시설을 방문하고 놀라운 점은 여기는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서 인적자원을 해소하고 있었다. 시설에서는 서민 아파트를 대학생들에게 낮은 월세로 제공을 해주고, 대학생들은 수업이 없을 때 시설에 방문하여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턴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은 대학생들에게 업무를 배정해 책임감을 주어 이 시설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실제로 방문했을 때 대학생이 시설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인턴들이 하는 일은 그저 일손을 돕는 단순 업무 수준에 그치고 있고, 대학생들도 그저 방학 동안 용돈 벌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늘 방문한 시설에 시스템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박4일 일정에서 하루는 고베, 하루는 오사카, 하루는 교토를 방문했다. 이 3박4일 일정으로 각

기다림과 배려로 만들어진 문화도시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쓰야마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끝에
사회문제를 해결한 아름다운 도시였다.
모두의 ‘기다림’과 ‘배려’로 지금의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했다.”*

예산문화원 조은실

어찌하다보니 금년에는 국외연수로 일본을 두 번이나 다녀왔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인력 국외교육으로 일본 에히메현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정을 보고 그동안 다녀온 곳과 달리 설렘이 가득했다. 첫날은 인천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질문지를 구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덕분에 일본에서의 일정을 훨씬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다.

시코쿠는 공공기관·민간기업·지자체·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었다. 특히 우리가 방문한 에히메현에서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콘텐츠 발굴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카마쓰 공항을 도착해 마쓰야마 시내를 들어서면서 본 마을의 광경은 너무나 평온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일본에서의 첫날, 우리는 마쓰야마 시청 담당자들에게서 지방창생정책, 시민참여 마을 만들기, 그리고 마쓰야마의 문화진흥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히메현 문화부 직원들을 만난 뒤, 마쓰야마 종합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았다. 이날 공공기관들과의 미팅에서 생각과 이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며, 생활문화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지역문화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이틀 간 우치코 마을, 도고온센나토, 마쓰야마 도시디자인센터, 미쓰하마루 빈집은행까지 현·시·주민협의회·민간단체·대학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짜임새 있게 들을 수 있었다. 1,500년의 역사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 고유자원을 문화로, 그리고 관광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는 마쓰야마 시의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마쓰야마시에는 아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없었지만, 소소한 볼거리와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함이 있었다. 1,500년의 역사를 지닌 도고온천,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 발굴 활동까지, 지역의 여러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쓰야마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끝에 사회문제를 해결한 아름다운 도시였다. 모두의 ‘기다림’과 ‘배려’로 지금의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했다.

우리나라도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인구감소,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문제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넘기고 무심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인력 개개인부터가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연구하고 개발하여 좋은 문화 콘텐츠로 실천하다보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일본 3대 마쓰리, 도쿄 간다 마쓰리

예산문화원 과장 이충환

우리나라 1년 중 축제가 진행되지 않는 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축제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들일까? 우리나라의 축제들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적인 축제 대표국가가 아닐까? 반면 일본은 어떻게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된 것일까? 라는 수많은 물음들은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생겼으며,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일본 현장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마쓰리의 어원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영접하고 경배하다’로 그 기원은 봄과 가을에 거행되던 제례 의식이다. 이때, 신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가무를 통해 신을 즐겁게 하는 종교적 의미가 있다.

마쓰리는 신사에서 이루어지는 의례행사와 신여(神輿) 행진으로 진행된다. 신여는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위(神位)를 옮기는 가마로 미코시(みこし)라고 한다. 미코시의 행진은 신을 상징하는 신위가 신사에서 나와 지역을 도는 순행이다. 줄지어 행진하는 신여는 야외에 설치된 임시 장소인 오타비쇼(おたびしょ)에서 머물고 신위는 다시 신사로 돌아가 안치된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마쓰리가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3대 마쓰리는 도쿄의 간다 마쓰리, 오사카의 텐진 마쓰리, 교토의 기온 마쓰리가 있다. 특히 ‘천하제’로 알려진 간다 마쓰리의 시작은 에도시대 때부터였다. 에도시대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장군이 직접 참관하였고 서민이 장군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고 한다. 초기의 간다 마쓰리는 9월에 진행되었지만 메이지 시대 태풍의 영향으로 5월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간다 마쓰리는 제례행사가 이루어지는 간다신사와 도쿄의 108개 마을이 함께 만들어간다. 간다 신사에는 3위의 신이 모셔져 있다. ‘결연의 신 : 오나무치노미코토’, ‘장사 번창의 신 :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 ‘사무라이의 원조 : 다이라노 마사카도’. 특히, 장사 번창의 신은 에비스(えびす, YEBISU)란 명칭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는 일본 주류 회사의 브랜드로 더 익숙하다. 이밖에 108개 마을에서는 제각각 그들이 모시는 다양한 신들이 있고, 그 모습은 미코시 행렬 때 볼 수 있다.



△ 간다신사 입구



△ 간다신사

마쓰리는 신사에서의 제례행사가 끝난 후 미코시 행렬로 이어진다. 선두는 막부의 상징인 사무라이를 필두로 3위 신의 미코시가 이끈다. 그 뒤로는 에도시대의 도쿠가와 막부의 태평 상징인 간코다시, 큰메기 위에 돌을 놓은 오나마즈와가나메이시 그리고 무사가 퇴치한 오오야마 귀신의 얼굴인 오오에야마가이진 등의 행렬이 이어진다. 이 행렬은 108개 마을을 순행하며 그 과정에서 각 마을의 미코시는 자연스럽게 행렬에 합류한다. 이때 마을의 신을 모신 미코시를 지는 사람들을 카키테라고 한다. 이들은 축제를 위해 고용된 인력이 아닌 마을의 주민들이다. 108개의 마을에는 제각각의 전통의상이 있으며 그 옷을 입고 남녀 구분 없이 무거운 미코시를 흔든다. 이때 흥을 돋우기 위해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른다. 마을의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전통 옷을 입고 함께 축제를 즐긴다.



△ 행렬 진행대기 중인 사무라이



△ 미코시 행렬

이처럼 마을 주민들에게 마쓰리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닌 지역민이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이자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축제기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축제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를 운명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타 지역과 대비하여 그들 지역의 자부심을 기르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미코시 행렬



△ 전통의상을 입은 아이

그럼 일본사람들에게 신은 어떠한 존재일까? 그들에게는 유일한 신은 없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인의 삶은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하며, 죽으면 절에 간다고 한다. 이 말로 그들만의 특유의 종교관을 엿볼 수 있다. 제례행사와 신의 무거움을 지양하고, 가무로 경쾌함과 유쾌함을 지향한다. 이점이 많은 관광객을 이끌고 세계적으로 그들만의 축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 현장 연수에 참여하며 직접 경험한 일본의 마쓰리는 안으로는 전통을 계승하고 밖으로는 그들의 문화를 온전히 알리는 축제였다.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뽐내고 알리기 위해 하나가 되어 들썩였고 이 광경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였으며 신비감까지 더하여 그들의 문화에 보다 빠르게 빠져들게 하였다. 이들의 축제 형태는 수요자 중심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목적과 성격이 모두 공급자, 즉 행사를 주체하는 이들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내가 즐거워야 타인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마쓰리는 특별함을 잃고 획일화되어가는 우리나라 축제 방향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 일년내내 축제가 쉽 없이 열린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는 축제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축제들은 주최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며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며 하는 것이 아닌 기획자가 되어 행정적인 업무를 하며 방문객들을 어떻게 더 많이 유치할까? 방문객들이 즐길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맞춰 축제를 준비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참여나 그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들의 많지가 않다. 물론, 그들의 기획력에 거주민 방문객들이 이질감 없이 참여하고 순간 몰입할 수 있는 힘은 우리나라의 축제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마을 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

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무 획일화된 축제보다는 특별함을 가진 정말 우리 지역의 축제, 지역민들의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의미 있는 연수였다.



△ 단체사진

2019 충청남도 문화원 사무직원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다녀오며

예산문화원 사원 장혜민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 총 2박3일간 충남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관한 충남 문화원 사무직원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다녀왔다.

입사를 한 후 제주도출장만 3번째였지만 이번은 워크숍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그간 제주도를 향하던 마음과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폭폭 찌는 날씨를 등에 지고 2박3일 워크숍을 진행할 호텔로 향하였다.

첫째 날은 초청 강연과 교류의 밤을 가지고 이튿날부터 답사를 시작하였다.

제주도 워크숍, 그 첫 번째 답사지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 돌 문화공원 이었다.

제주도를 여러 번 와봤음에도 불구하고 돌문화공원은 첫 방문 이었다.



4개의 오름(늘서리오름, 큰지그리오름, 작은지그리오름, 바농오름)에 둘러싸인 곳자왈 원시림을 이용해 조성한 이곳 돌 문화공원의 핵심주제는 바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다.

1999년 1월19일에 이곳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지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위령탑으로 가는 길목의 계단을 19개로 제작했으며 전설의 통로라고 불린다고 한다.

그렇게 19개의 계단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보였다.

나에게 있어 이곳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연못 이었다.

신화 속에서 설문대할망은 키가 무려 49,000m나 되는 거녀 였다고 하는데 그녀가 자식을 위해 죽을 끓이던 솥과 한라산의 백록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원형무대라고 했는데 사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았지만 수면위에 비추는 자연풍경이 아름다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답사를 하던 중간 비가 와 덥고 끈적거렸지만 해설사 분이 설명해 주시는 신화 이야기를 토대로 둘러보니 나도 모르게 돌문화공원에 폭 빠져 흥미롭게 답사를 마쳤던 것 같다.

버스로 이동하여 돌문화공원의 여운을 느끼며 다음 답사지로 이동하던 중 어느덧 비가 그쳤고 그렇게 두 번째 답사지인 천연기념물 제374호인 비자림에 도착하였다.



비자림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향이 코에 맴돌았다.

이곳 비자림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에도 선정이 되어있던 터라 워크숍 전부터 많은 기대를 하고 왔던 곳이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발을 디뎠다.

500년 ~ 800년 비자나무가 약 2,800그루 밀집해 있다보다 코에 닿는 공기가 사뭇 남다르게 느껴져 그간 일하며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비자림의 탐방로는 길도 평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제대로 힐링 할 수 있는 곳 이었고 바닥은 화산송이로 되어져있었다 비가 와 맨발로 걸을 수가 없어 그저 아쉬웠다 또 답사 내내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더운 날씨에도 선선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다음에 가족과 함께 꼭 다시 오고 싶었던 곳 이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 답사지 빛의 벙커 클림트 전시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내가 지내고 있는 고장 예산에서는 전시회 같은걸 접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번 답사지 역시 한껏 기대를 하여 전

시회를 좀 더 잘 보고 느끼기 위해 정보를 접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는 동안 전시회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다.



해저 광케이블 관리 시설인 벙커는 한국 통신이 1990년부터 사용해오던 벙커이며, 1층 단층 건물로 가로100, 세로 50으로 내부 높이가 무려 5.5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 이러한 공간에서의 전시회라니 그간 가본 평범한 전시회가 아닌 100여개의 비디오 프로젝터와 스피커들이 각종 이미지들과 음악으로 360도로 관람이 가능한 전시회라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여태 야외 답사지를 다니다가 실내답사지에 도착하니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전시장으로 입장하였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웅장한 사운드와 작품들이 온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술과 다소 거리가 먼 나에게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품들 외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방에 사라졌다. 내가 비록 아는 게 없을지라도 옷 곳곳에 한눈에 심지어 바닥까지 감상이 가능한 작품들을 막상 접하니 입이 썩 벌어질 정도였다.

비디오 프로젝터로 움직임도 생생하게 느끼고 일반 미술관처럼 천천히 거닐면서 감상하는게 아닌 기대거나 자리에 앉아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미술관이어서 그런지 다른 전시관에서처럼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 여유롭게 감상을 하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눈으로 담은 작품들을 나오자마자 있는 아트샵으로 가서 구경을 하니 평소에는 그저 기념품으로 자각하고 말았을 물건들이 정말 감각적이고 멋있어 보였다.

이렇게 빛의벙커 클림트 전시회를 끝으로 답사 첫날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충남 문화원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누워 덥고 습했지만 보고 느낀게 많았던 하루를 마쳤다.



2박3일 워크숍의 마지막 날이 밝고 텔레비전에서 많이 접했지만 직접 가보진 못했던 마라도로 향하였다.

마라도선착장으로 가는 내내 비가 내려 배가 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금방 비가 그쳤고 마라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과 함께 워크숍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사진촬영을 하고 자율적으로 마라도를 관람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정말 작은 섬이지만 덥디 더운 날씨가 돌러보는 마라도는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지만 넓게 보이는 바다, 내가 사는 곳 서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맑고 맑은 제주도의 바다를 보면서 뻗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중간 중간 사진을 찍으며 마라도를 한 바퀴 둘러 본 후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그 유명한 마라도 짜장면을 먹기 위해 식당에 도착하였다.

이미 다중매체에서도 나왔듯 정말 유명한 마라도의 짜장면이었기에 부푼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이곳 마라도의 여운 그리고 이번 워크숍의 마지막 답사지라고 생각하니 드는 섭섭한 마음을 뒤로한 채 마지막 답사가 끝났다.

2박3일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지난 청소년 민속예술제로 인한 출장으로 방문했던 곳을 재방문하면서 지난 출장의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나고, 다른 문화원 직원들과 함께 지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문화원이 비록 같은 문화원이지만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각 문화원만의 특색을 느끼며 우리문화원의 위치 또 문화원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해 돌아보며 장단점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년하례회



마을동제지원





17



18

1. 가덕리 2. 가지리 3. 갈산1리 4. 계촌리 5. 광천리 6. 대리 7. 대회리 8. 마전리 9. 방산리 10. 봉림리
11. 분천4리 12. 상중리 13. 송석리 14. 신중2리 15. 예림1리 16. 운산1리 17. 조곡리 18. 차동리

영선관리



1



2



3



4

1. 도어락설치 2. 소방점검 3. 입간판 수선 4. 화장실 문 수선

문화답사



1



2



3



4



5



6



7



8



9



10

1-2. 예산학 답사 (경주) 3. 제1차 문화답사 (파주,고양) 4. 제2차 문화답사 (서울) 5. 추사인문답사 (해남)
6. 충남학 1차 답사 (과산) 7. 충남학 2차 답사 (익산) 8. 충남학 3차 답사 (단양)
9. 충남학 4차 답사 (보은) 10. 충남학 5차 답사 (청주)

운영회의



1



2



1. 자문위원회의 (6.19.) 2. 제1차 이사회 (2.5.) 3. 제2차 이사회 (5.30.)
4. 제3차 이사회 (9.26.) 5. 총회 (2.25.) 6. 회계 감사 (1.28.~29.)

문화학교



1. 가곡교실 2. 문화학교 간담회 (9.23.)
3. 민화 4. 요가 5. 전통무용 (북, 장구)
6. 필라테스 7. 하모니카 8. 한학 9. 화요서에

추사인문학교



1. 대금 2. 사진테라피
3. 중국어 4. 추사서예 5. 해금

예산학 인문강좌



1. 1강 2. 2강 3. 3강 4. 4강 5. 5강
6. 6강 7. 7강 8. 8강 9. 9강 10. 10강
11. 11강 12. 12강 13. 종강식 (수료식)

충남학 인문강좌





1. 1강 2. 2강 3. 3강 4. 4강 5. 5강 6. 6강 7. 7강
8. 8강 9. 9강 10. 10강 11. 11강 12. 12강 13. 13강 14. 14강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1. 동막골 오감만족 농촌축제 공연 2-3. 보부상 강의 4. 서울문화원 엑스포 공연
5. 서울문화원 엑스포 참가 6. 칠갑산 문화축제 공연

평생 학습 우수프로그램 - 태평소강의



생활문화 활성화





3



4



5



6



7



8



9

- 1. 꿈틀 2. 드르륵 3. 목향 4. 이코팝스 5. 춤추고
- 6. 충남생활문화축제 (꿈틀)
- 7. 충남생활문화축제 (이코팝스)
- 8. 충남생활문화축제 (예민해)
- 9. 충남문화생활축제 (춤추고)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 고마워놀이터 5. 고마워놀이터 (출렁다리)
- 6.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특강 (사나고)
- 7-10.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 11.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세한도)
- 12. 우리는 모두 하나의 작품
- 16. 우리는 모두 하나의 작품 (단테의 초상)

지역문화인력 개인프로젝트 (청바지II) - 지역문화인력



예산학 연구 발전 세미나



대백제 부흥군 위령제



1



2

1. 부흥군위령제 2. 산신제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1



2



3



4



5



6



7



8

1-4. 교육 2. 사진 연습 공연 참가 (사회복지박람회)
5.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공연 6.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7. 총연습

제7회 자암김구 전국서예대전



1



2



3



4



5



6



7



8

1. 시상식 2. 심사 3. 심사위원회의 4. 자암운영회의 5. 전시회 6. 최종심사 7. 커팅식 8. 현장검증

제30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회호대회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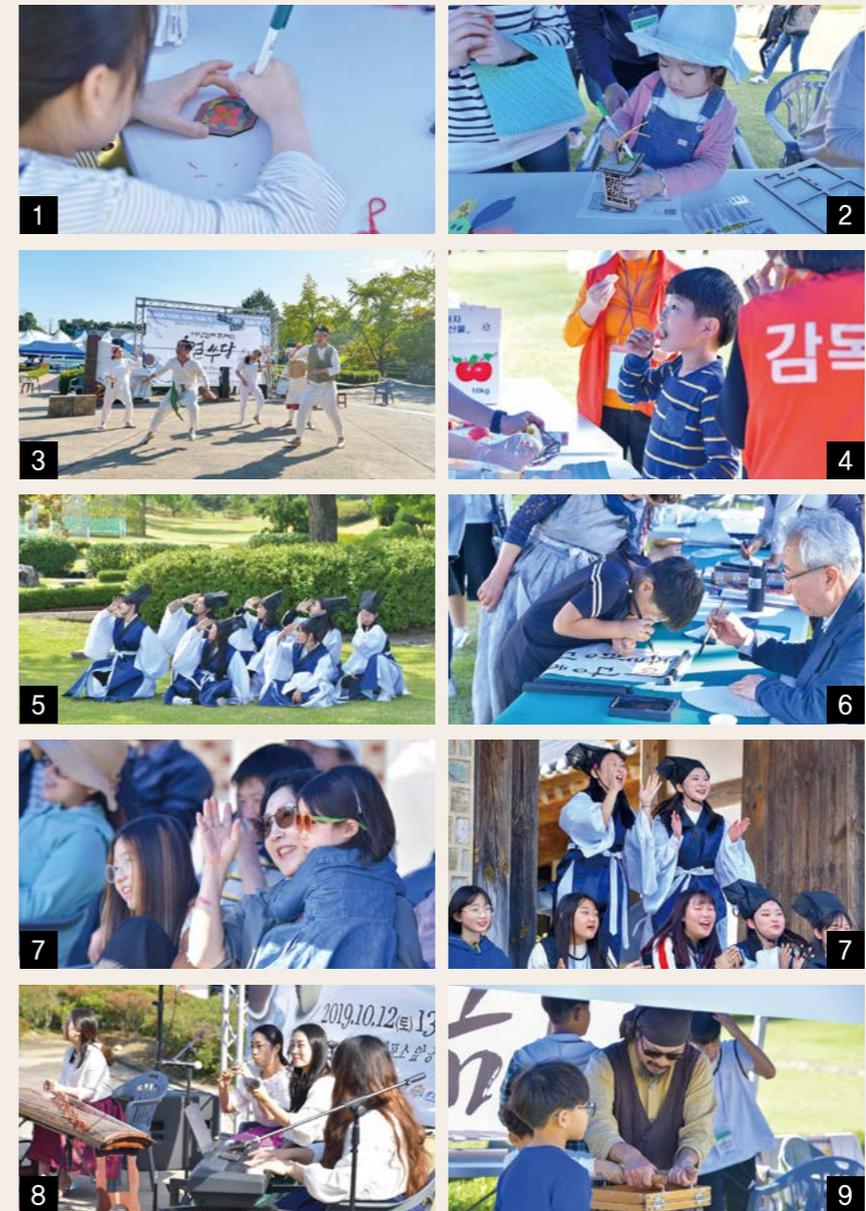
<1일차>

1. 개회사 2. 개회식
3. 결과발표 (청소년부, 손넋글씨부)
4. 대회 준비 중 5. 명제추천
6. 수상작 사진 7. 최종 심사중



〈2일차〉

1. 결과발표 (일반부) 2. 대회 접수 확인
3. 대회 준비 중 4. 대회 중 5. 수상작 6. 식전공연
7. 심사전경 8. 심사 중 9. 심사위원회의
10. 초대작가 인증 단체사진 11. 휘호대회 전경



〈부대행사〉

1. 노리개 만들기 2. 등 만들기 체험
3. 마당놀이 열쑤당 4. 사과시사회 5. 유생복 체험
6. 초대작가회 체험 7. 추사의 향기 음악회 관람
8. 추사향기음악회 9. 한지만들기 체험



1. 시상식 2. 전시회 3. 단체사진 (예산문화원) 4. 운영진

제3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 1100년 樂 뮤직페스티벌 불꽃쇼
- 2-3. 1100년 樂 뮤직페스티벌
- 4. 1100년 희망노래 가곡 음악회
- 5-6. 1100주년 태평기원 퍼레이드
- 7. 과천국악축제한마당
- 8. 꽃할배, 꽃할매들의 청춘고고 파티
- 9. 먹거리부스 10. 박카스 아빠의 달고나 SHOW

- 11. 버드리아카데미가요장구난타 12. 버스킹공연 13. 양재가품바 14. 어린이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 15-16. 예산꿈나무들이 댄스 17. 예산스쿨방송제 18. 오색국수커팅식 19. 점등식
- 20. 제2회 청소년스쿨뮤직페스티벌 21. 제3회 충남춤마노래자랑 22. 지역동아리 공연 23. 지역직장인밴드공연
- 24. 청춘 나이트 DJ SHOW 25. 축제장 전경 (야간) 26. 축제장 전경 27. 폐막불꽃쇼

지역축제 나눔활성화



1



2



3



4



5

1. 나눔로또 추첨식
2-5. 나눔부스

문화예술지원 (고덕음악회)



1



2



3



4

1. 보물이 다가와 말을걸다 전시 2. 불꽃놀이 3. 시와 음악이 흐르는 문화한마당 개막식 4. 윤봉길 시조 공연

작은영화관 기획전



2020 예당호 해맞이



초청특강 - 일랑 이종상 화백



예산문화원 학술·출판사업



1. 2019 제7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2. 2019 제30회 추사 김정희 추모 전국 회화대회
3. 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
4. 예산말사전 제4권
5. 예산에 잠든 조선 선비의 표상 면암 최익현
6. 소음도시 형성과정에 관한 교재
7. 예산, 그 풍경이 참 사랑스럽다
8. 제22회 문화회원 작품전 - 예산문화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들과 함께 합니다.

예산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신년교례회 및 전시회, 공연들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예산문화원은 이 숲에 물과 거름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군민과 출향인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 문화발전기금 납부자

(주)대산산업, (사)예산모현사업회, 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
김중찬, 김관희, 권광석

보내주신 회비 및 기부금은 조세제한 특례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되며, 예산의 문화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보내주실 곳 : 국민은행(예산문화원) 463901-04-161758

예산문화원 역대 문화원장 (1955~현재)

1대	장영복 원장	(1955. 10. 15 ~ 1957. 12. 31)
2대	김경환 원장	(1958. 01. 01 ~ 1961. 12. 31)
3대	박병선 원장	(1962. 01. 01 ~ 1963. 12. 31)
4대	장영복 원장	(1964. 01. 01 ~ 1965. 05. 24)
5대	서창재 원장	(1965. 05. 25 ~ 1978. 02. 28)
6대 ~ 10대	이항복 원장	(1978. 03. 01 ~ 1995. 07. 16)
11대 ~ 12대	이지호 원장	(1995. 07. 17 ~ 2004. 11. 11)
13대	이진자 원장	(2004. 11. 12 ~ 2006. 06. 30)
14대	이용면 원장	(2006. 07. 01 ~ 2008. 11. 10)
15대 ~ 17대	김시운 원장	(2008. 11. 11 ~ 현재)

예산문화원 조직도



**(사)추사 김정희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철원
회장이 일구

BEST VALUE, FIRST VALUE



(주)밸류엔지니어링은 반도체 Ion implanter 설비 부품을 중심으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기술들을 활용하여 SOLAR, LED, LCD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 및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최적품질 유지를 위해 저희 임·직원 일동은 끊임없는 개선 활동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황규태

(주)밸류엔지니어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재면 제일리 640-5 TEL : 031-323-3511



MG 새마을금고 예산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행복한 예산을 만들어 갑니다.

이사장 정관영 전 무차철회

MG 새마을금고 예산 예산읍 사직로2 TEL : 332-5487



**전통
예산
옹기**



4대를 이어온 전통 옹기의 名家
우리의 전통옹기를 위해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전통예산옹기는
4대를 이어온 전통옹기의 명가! 대한민국 옹기 명장(98-23호)
황충길 명장이 만듭니다.

TEL : 041-332-9888

산업용 탈취제

• odor-kill 충남대리점 •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대산산업주식회사

대표 신창균

무료상담전화 010-6633-8123

대산산업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안길 34-32 TEL : 041-332-8123~4